

사회적경제연구회 제7회 워크숍

사회적경제와 지역기금형성

2011. 7. 21(목)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7회 「사회적경제연구회」 워크숍 계획

1. 개요

- 일시: 2011년 7월 21일(목) 14시~17시
- 장소 :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3층)

2. 목적

- 지역기금형성 및 지역화폐의 사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전략과제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제발표
 - ▷ 사회적경제와 지역기금 조성 방안
 - 이희수(사회연대은행 상임기획이사)
 - ▷ 한밭레츠의 사례로 보는 지역통화 운동의 가능성
 - 김성훈(민들레의료생협 이사)
- 토론
 - 연구회 지정토론자 등 참석자 전원
- 기타논의
 - 제8회 연구회 주제 및 발표자 선정 공지

4. 행사일정

시간		소요 시간 (분)	내용	비고
부터	까지			
14:00	14:10	10	◆ 참석자 인사	
14:10	14:50	40	◆ 발제자 발표 (이회수 - 사회적경제와 지역기금형성)	
14:50	15:30	40	◆ 발제자 발표 (김성훈 - 사회적경제와 지역화폐)	
15:30	15:40	10	◆ 휴 식	
15:40	17:00	80	◆ 종합토론 및 정리	

5. 사회적경제 연구회 내부 참석자(전략과제 진행)

구분	연구자	전담분야 및 소속	비고
원내	원장님	총괄	
	임준홍	실태분석, 선진사례, 대응방안	공동책임
	김양중	이론, 실태분석, 대응방안	공동책임
	송두범	실태분석, 대응방안	
	고승희	선진사례, 대응방안	
	이관률	이론, 실태분석(네트워크, 연대분석)	
	허남혁	실태분석, 대응방안(로컬푸드)	
	여형범	이론, 실태분석	
	문정환	실태분석, 사례분석	
	김종수	이론, 사례분석	사회적경제지원센터

6. 사회적경제연구회 외부 참석자

이 름	소속 및 전문분야	이메일	전화번호
박영송	충청남도의회	ysong71@hanmail.net	
이은애	씨즈	aeunle@hanmail.net	
김제선	풀뿌리사람들	poolppuri@gmail.com	
김성훈	민들레의료생협	tjlets@hanmail.net	
서정민	지역재단	jmsuh@krdf.or.kr	
박상우	홍성풀무생협	chamngo@empal.com	
박경	목원대학교 교수(경제학)	baiuto@mokwon.ac.kr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	jseeun@cnu.ac.kr	
류동민	충남대 교수(경제학)	rieudm@cnu.ac.kr	
이정만	공주대 교수(행정학)	leejm21@kongju.ac.kr	
추 욱	충남도 사회적경제계장	hopechuuk@korea.kr	
임호범	금강일보	comst2005@hanmail.net	
김민숙	씨즈	min@theseeds.asia	
최선희	씨즈 충남지부장	sunny@theseeds.asia	
김지철	충청남도 도의원	saramaul@hanmail.net	
박정현	대전광역시 시의원	smallpark21@dreamwiz.com	
노병갑	충남지역자활센터 사무국장	gabeeya@hanmail.net	
김종문	충청남도 도의원	kim2086@hanmail.net	
조성희	충남교육연구소	chungnamedu@hanmail.net	
최민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minicht@hanmail.net	
이원호	(주)푸드코아	ju0547@fooco.kr	
홍은영	(주)푸드코아	cyberap68@naver.com	
박찬무	(주)즐거운밥상	coldmoo72@gmail.com	
윤성웅	연기지역자활센터 센터장	loveu71@nate.com	
류철식	다인복지연구소	rch3927@nate.com	
이재국	얼굴있는먹거리	uridemo@naver.com	
남지현	얼굴있는먹거리	0102njh@hanmail.net	

7. 이후 일정

<표> 연구회 워크숍 전체 일정

구분	일정	논의 내용	전문가 초청 발표자	비고
사회적 경제의 이해	3월 25일	- 사회적경제의 이론과 실제	김신영(성공회 대학교)	기초학습 및 연구네트워크 구축
	4월 1일	- 캐나다의 사회적 경제 - 충남도 현황	이은애(씨즈 혁신사업단장) 송두범(사회적경제지원센터)	〃
	4월 19일 (화)	- 영국의 사회적 경제 - 이탈리아의 사회적 경제	조우석(소기업발전소) 최혁진(원주의료생협 전문이사)	〃
	5월 3일 (화)	- 일본의 사회적 경제 - 성미산 마을만들기	강내영(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조경민(마포희망나눔)	〃
실태 분석	5월 19일 (목)	- 충남 사회적경제 여건분석 - 사회적경제 생태계 분석 -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과제	김양중(충남발전연구원) 이은애(씨즈 혁신사업단장) 송두범(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부 자문회의
사회적 경제의 이론 및 실제	6월 8일 (수)	- 원주의 사회적경제 - 대구·경북의 사회적경제	최혁진(원주의료생협) 류병운(대구경북사회적 기업지원센터장)	기초학습 및 연구네트워크 구축
	7월 7일 (목)	-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포괄) - 사회적경제와 주거협동조합	하승우(지행 네트워크) 함영진(보건복지정보개발원)	〃
	7월 21일 (목)	- 사회적경제와 지역화폐 - 사회적경제와 기금(펀드)	김성훈(민들레의료생협) 이희수(사회연대은행)	〃
	8월 10일 (수)	- 사회적경제와 시민단체(포괄) - 풀뿌리사람들(구체적)	이란희(제3섹터 연구소) 김제선(풀뿌리사람들)	〃
	8월 25일 (목)	-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CB) - 사회적경제와 (지역자산을 활용한)지역개발	유정규(지역재단) 김달수(경기도의원, 前 희망제작소 뿌리센터장)	〃
	9월 8일 (목)	- 충남 사회적경제 생태계 분석 -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과제		〃
	9월 22일 (목)	-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1		
	10월 6일 (목)	-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1		
	10월 20일 (목)	- 종합정리 및 정책화 방안 제안 - 향후 운영방안 논의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웹하드(자료 공유)

- www.webhard.co.kr (ID: se1004, 비밀번호: se1004)

[목 차]

〈발표원고〉

- 사회적경제와 지역기금 조성 방안1
- 한발레츠의 사례로 보는 지역통화 운동의 가능성24

〈참고자료〉

- 호혜시장은 이미 부활하고 있다40
- 제10차 한발레츠 정기총회47

사회적경제와 지역기금 조성 방안

이 회 수

[사회연대은행 상임기획이사]

사회적경제와 지역기금 조성 방안

이회수(사회연대은행 상임기획이사)

I. 문제제기

1.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의 육성정책은 21세기판 뉴딜정책이자 새로운 사회를 여는 미래성장 트렌드임
2.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의 핵심적인 성장동력은 기업가 정신 계발과 금융인프라 구축임.
3.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의 조직특성과 정책특성에 맞는 자원-자본시장 개발이 필요하며 지자체의 역할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4. 지자체 중심의 지역기금 형성과 광역 지자체의 역할 찾기
5. 충남 지역기금개발로 사회적기업 활성화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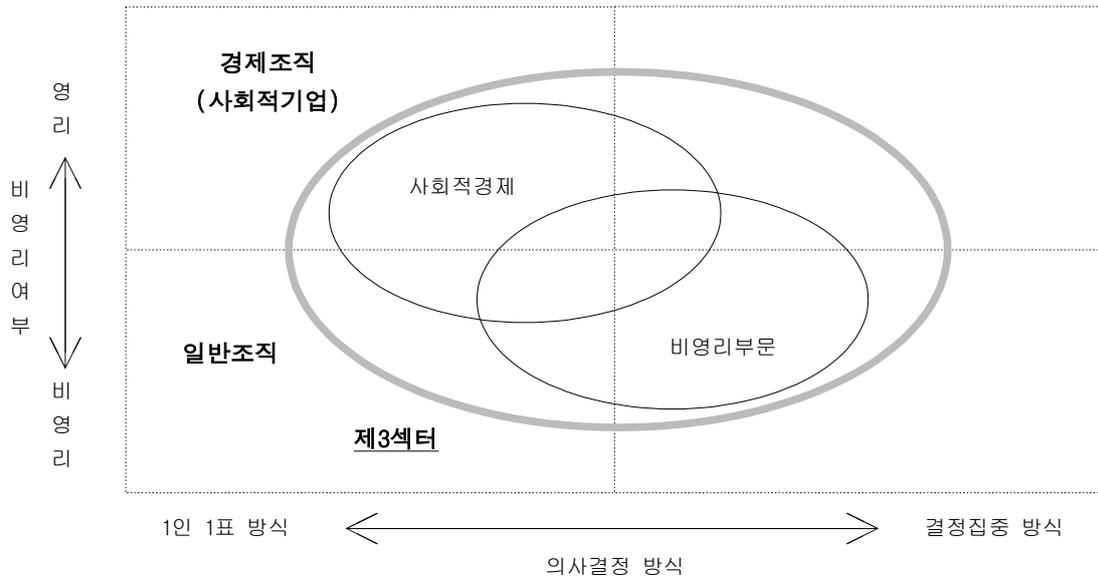
II. 제3섹터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1. 제3섹터란 사회적경제와 비영리부문을 포괄하는 실용적 범주임

- 사회적경제부문은 수익창출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지만, 조직의 목적이나 운영방식에 있어 기존 영리기업과 차별화된 조직들의 활동영역을 지칭하며, 주로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등이 주요한 행위자가 되며, 특히 많은 조직들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임.
- 비영리민간부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간단체들의 활동영역을 지칭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는 시민사회단체 및 자원봉사단체등이 주요한 행위자가 되나, 반드시 1인 1표제와 같은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을 전제하지 않음.

- 그 결과 제3섹터의 주요한 행위자는 비영리민간단체나 협동조합과 같은 어느 한 조직형태에 근거하지 않으며, 제3섹터 개념이 말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제3섹터내의 다양한 조직형태를 포괄하는 새로운 범주임.

<제3섹터에 대한 하나의 정의>



출처:노대명,이태리 사회적기업법의 정책적함의, 국제사회보장동향, 2009.에서 인용.

2. 사회적경제와 비영리부문의 공통점과 차이점

- 제3섹터의 양대 범주를 구성하는 비영리섹터와 사회적경제는 민간이 공식적으로 결성한 조직이라는 점, 조직운영상 의사결정의 자율성, 그리고 자발적 가입 및 참여의 원칙이라는 점에서 유사점을 가지나 다음 3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임.
- 첫째는 비영리기준에 관한 차이점으로 비영리조직 접근은 제3섹터 조직이 이윤이나 재무적 성과를 획득하거나 분배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지만 사회적경제 접근은 협동조합과 상호공제조합들이 조합원들에게 잉여의 일정부분을 배분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비영리기준이 제3섹터조직의 필수적인 아니라고 간주함.
- 둘째로 민주주의 기준에 대한 차이점으로 비영리조직 개념하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않는 조직도 제3섹터에 속하지만, 사회적경제 개념하에서는 이러한 조직들은 제3섹터에서 제외됨. 예를 들면, 병원, 대학, 학교, 문화 및 예술

단체들이 민주주의 기준은 충족시키지 않지만 비영리조직 개념의 다른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시장에서 그들의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비영리조직 개념하에서는 이들이 제3섹터에 포함되는 반면에 사회적 경제 개념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 셋째로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준의 차이점으로 사회적경제 개념하에서의 모든 조직의 주요한 목적은 사람들 혹은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반면에, 비영리조직 개념하의 조직들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우선적 목적은 아님.

<제3섹터와 사회적기업 특성에 대한 비교>

구분	제3섹터의 '유럽식'개념 이해	제3섹터의 '미국식'개념 이해
개념	민간단체의 유형과 특성뿐만 아니라, 모든 '비영리추구'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경제적 발전을 포함하는 분석적 접근 강조	모든 비영리조직들로 구성된 섹터의 중요성을 통계적으로 해석하는데 중심을 두는 분류적 접근 강조
성장환경	사회적경제	시장경제
비영리 기준	구성원에 대한 제한적 이윤분배와 공동체 이익 추구	이익비분배 원칙이 중심이며, 협동조합 및 상호공제조합 배제
의사결정	다중의 이해관계자 참여	이사회, 운영위원회등 제한적임
활동목적	대인서비스 및 사회경제적 수혜	미션중심의 모든 비영리활동
조직형태	협동조합, 공제조합, 협회	비영리단체
전략적 주도세력	사회적경제부문/정부	비영리재단과 사회적책임기업
지향가치	beteen and beyond	beteen
법적프레임워크	다양한 정책목표에 따른 다양한 법적구조 개발	비영리단체의 상업활동 허용과 세제상의 혜택

3.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가 정신

- 사회적기업은 제3섹터를 성장기반으로 하나 질적으로 발전된 새로운 개념임.
- 사회적기업은 제3섹터부문을 개발하는 혁신동력에 관한 문제이자 새로운 기업조직형태로서 사회적기업의 출현과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등장에 관한 문제임.
- 사회적기업은 제3섹터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태동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의해 제3섹터내의 조직들 또는 비영리조직이 새롭게 혁신된 것으로서, 기업가적 마인드와 혁신적인 경영기법,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조직임.

- OECD는 ‘사회적 기업은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일반 활동 및 공익활동을 아우르며, 이윤극대화에 두지 않고 특정한 경제 및 사회적 목적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나 사회적 배제 및 실업문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정의함.
- 영국의 통상산업부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기업의 잉여금은 주주와 소유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용되기 보다는 그 사업체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되는 기업”이라고 정의함.
- 미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은 기업적 방법을 사용하여 주요목표인 사회적 혹은 환경적 미션을 이행하는 조직 또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반에 걸쳐서 유럽 각국에서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되는 사회적기업의 법적 프레임워크는 전통적인 비영리조직이나 협동조합보다 새로운 유형의 혁신조직인 사회적기업의 이니셔티브 조직에 잘 적합하도록 개발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은 넓은 의미의 사회적기업과 좁은 의미의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넓은 의미의 사회적기업은 수익실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이같은 정의를 따를 경우, 사회적기업에는 고용노동부형 사회적기업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비즈니스, 농어촌 공동체회사, 마을기업, 소셜벤처, 소셜비즈니스, 마이크로파이낸스 나아가 거의 모든 비영리기업과 심지어 사회공헌에 적극적인 영리기업까지 포함될 수 있음.
- 반면 좁은 의미로 보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가 규정한 사회적기업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법제도적으로 말하는 사회적기업이란 대부분 좁은 의미의 사회적기업을 지칭하는 것임.
- 넓은 의미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목적을 기업적 방법을 추구하는 혁신적인 기업’으로 제3섹터의 중심에서 그 잠재력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제3섹터는 사회적경제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음.
-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제3섹터의 발전과 더불어 기업가적 정신의 개발이 필요함

- 제3섹터 발전을 위해서는 권위주의적 관료체제와 독과점적인 사회경제구조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함.
-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비영리부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농어촌과 지역중심으로는 사회적경제영역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제3섹터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회목적성, 기업지향성, 혁신적 사고로 무장한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야 함.

Ⅲ. 사회적기업 금융의 특성과 역할

1. 사회적 기업 금융의 특성

- **실물경제와 금융은 실과 바늘과의 관계로서 금융조달은 사회적기업 육성의 핵심요인임.**
 - 대기업과 IB금융,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금융, 서민경제와 서민금융이 동반개발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정책에는 그에 걸맞는 금융정책이 적절하게 개발되고 있지 못함.
 - 제도권 금융은 사회적기업을 정보비대칭성의 문제, 금융공급에 따른 높은 신용위험도,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가진 부문으로 금융상의 투.융자 회피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최근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개정 추진중.
 -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융산업은 독자적인 산업성장보다는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투자리스크를 공동부담하는 지속성장의 동반자로 거듭나야 함.
- **사회적기업 금융은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한 일반 기업의 자본시장의 성격과 더불어 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자본시장의 성격을 동시에 지님.**
 - 사회적기업은 제도권시장인 금융기관, 투자자로부터의 자본 조달과 함께 정부, 영리재단으로부터 기금지원, 융자 등의 자본 조달을 받는 구조를 가짐.

- 해외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과정에서 초기에는 정부의 정책금융과 공동체개발을 위해 조성된 지역기금들이 큰 역할을 하면서 이후에 자본시장과 연계·발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초기단계에서 정부차원이든 민간차원이든 마중물 역할을 할 내셔널 펀드를 규모있게 조성하지 않고 있음.
-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저소득 대안금융은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금융조달채널을 구축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의 전국적, 지역적 모금 채널은 부재한 상태임. 정부가 정책기금조성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2000년을 전후하여 대기업들과 시민들의 기부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민간차원에서 사회공헌기금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기금조성을 위한 방안이 요구됨.

□ 사회적경제와 비영리부문의 미발달로 사회적기업의 재정적 기반과 금융조달 시장이 취약함.

- 해외국가의 사회적경제는 상대적으로 협동조합과 민간재단 펀드등을 중심으로 한 재정건전성 제고와 더불어 소셜금융을 축적해 온 반면, 우리나라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금융과 지역금융과 분리된 속에서 혁신을 위한 자본축적이 지연되어 왔음.
- 미국의 경우에는 지역재투자법에 의한 지역개발금융기구들이 사회적기업을 프로모션하고 있으며 유럽역시 다양한 목적의 지역개발펀드들이 지역공동체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지역금융의 축소와 후퇴는 더욱 심화됨.
-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의 재정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풀뿌리 공제회, 사회적 조직간의 컨소시엄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내 협동조합금융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 있음.

2. 사회적기업 자본시장의 구조

- 사회적기업의 자본시장은 크게 시장적 자본조달과 비시장적 자본조달등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시장적 자본조달의 대표적인 형태는 용자와 투자유치이고 비시장적 자본조달의 대표적인 형태는 정부보조금과 모금으로 이루어짐.
- 현재 사회적기업의 자본조달방식은 주로 용자와 정부보조금등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투자유치나 모금등에서 취약함.
-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경우 수급자 중심의 장애인복지, 노인복지단체와 환경, 청소년, 실업자 등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모금을 할 수 있는 명분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사회적기업부문에 서도 기업의 기부금은 물론 일반시민들의 성금모집등을 위한 방안으로 중앙차원에서 사회적기업 전문모금단체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기업 자본시장의 구조 >

	구 조	재 원
시장	1. 일반시장에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상품구입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의 지불
	2.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로부터의 이용료	이용료의 유형에 따른 수혜자의 지불 능력
	3. 공익연계마케팅 (Cause Related Marketing)	기업 상품 및 서비스 촉진을 위한 캠페인
	4.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Loan)	금융기관의 융자금
	5. 투자자로부터의 투자금 유치	일반 투자자의 투자금
비시장	1. 현금이나 물품의 기부	개인 및 기업 기부자
	2. 공공지원 : 서비스 계약, 보조금 (subsidy), 그랜트(grant) 지원	중앙 및 지방 정부
	3. 기업 내부 예산 : 스폰서십 (sponsorship)	기업의 후원 계약에 따른 일정 지원금

자료: 양용희, 사회적기업 민간기금조성과 금융지원활성화방안, 2011. 인용

3. 자본조달방식에 따른 기금, 융자, 투자의 장단점

-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랜트, 융자, 투자, 모금 등을 통한 자본조달은 성격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이룩하는데 장점과 단점의 요소를 지니고 있음.
- 사회적기업의 설립초기, 성장기 등 시기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의 정도에 따라 자본의 지원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성격에 맞는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필요함.

< 기금, 융자, 투자의 장점과 단점 >

	장점	단점
기금	<p>지원기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다.</p> <p>기금은 자체 수익을 창출할 때까지 유용한 지원이 될 수 있다.</p> <p>기금은 자산 수입을 위한 자산 구입으로 사용될 수 있다.</p> <p>기금은 수익창출이 없는 사업에 지원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p> <p>기금은 상업적 지원을 통해 불가능한 혁신적이거나 문제를 지닌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p>	<p>기금은 일년 단위의 단기적으로 지원되므로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힘들다.</p> <p>기금사용은 기업이 필요한 분야보다 특정 프로젝트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p> <p>기금 획득에 높은 경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기금 획득 과정이 관료적이거나 시간, 기술 등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p> <p>기금지원자는 지속적인 사업이나 장기지원보다는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p> <p>기관이 사회적목적 보다는 기금의 성격에 부합하여 프로그램을 전개할 위험이 있다.</p> <p>기금을 획득하면 꼭 필요한 목적을 위해 최선의 사용을 하기보다는 획득한 금액을 사용하는데 초점을 두기 쉽다.</p> <p>기금은 유동적이지 못해 프로그램의 성격이 변화면 획득하기 힘들다.</p> <p>기금의 신청, 승인, 사용 사이에 많은 시간 소요.</p>
융자	<p>융자는 사용에 있어 기금보다 자유롭고 융자는 기금보다 획득하는데 빠르다.</p> <p>융자획득은 기금처럼 경쟁보다는 신청자의 자격 평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융자는 재무관리, 상업적목적수행등과 같은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 영향을 제공</p>	<p>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 장비와 같은 자산의 안정성을 심사하므로 사회적기업이 자산이 없을 경우 융자받기가 힘들다.</p> <p>융자는 기금과 달리 이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p> <p>채권자는 사회적기업의 과거의 재무 상태를 보기 때문에 사업초기에는 융자받기가 힘들다.</p>
투자	<p>투자자보다 대규모의 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p> <p>보증이나 담보가 필요없다.</p> <p>상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p> <p>경영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전문성을 지닐 수 있다.</p>	<p>투자자와 사업 경영권을 나누어야 하므로 설립자와 투자자사이에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p> <p>사회적기업의 법적, 경영권의 구조는 투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p> <p>사회적기업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높은 성장이나 투자회수와 같은 실적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p> <p>투자자는 미래에 그들의 주식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확고한 수입의 보장을 담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 있다.</p>

자료: 양용희, 사회적기업 민간기금조성과 금융지원활성화방안, 2011. 인용

4.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금융의 역할

- (투자자)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제공하는 투자가로서의 역할
- (혁신가)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금융 프로그램과 소셜금융상품을 개발하는 혁신가로서의 역할
- (가치평가전문가) 기업별, 프로젝트별 사회·경제적 성과에 대한 기대수익을 추정하고, 위험을 가격으로 전환하는 역할
- (지역사회재건과 사회통합의 촉진자) 제도권 금융이 회피하는 낙후지역과 버팀경제(Bottom Economy)에 대한 소셜금융 제공으로 지역공동체사회의 재건과 소외 그룹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역할

IV. 국내외 사회적기업 금융 현황과 특징

1. 국내 사회적기업 금융지원현황

1) 정부차원의 금융지원 현황

- 고용노동부 대부사업
 - 고용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인증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비 대부 사업을 추진한 바, 2008년 50억, 2009년 30억, 2010년 60억 총 140억 규모의 장기저리 융자사업을 수행함
 - 고용부의 위탁사업기관으로 선정된 <함께 일하는 재단>, <사회연대은행>, 근로복지공단, 민생포럼,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열매나눔재단, 사랑사랑등 민간수행기관이 정부위탁을 받아 사업을 대행
- 미소금융재단 대부사업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2010년 12월 기준 8천억의 재원을 마련했으며 향후 10년동안 2조를 조성하여 연간 2000억원의 기금을 마이크로크레딧에 사용하기로 함.

○ 2010년 연간 MC 집행규모는 1,150억 정도이고 이 중에 사회적기업 대부사업기금은 2000억 기준 4.3%인 49억 4천만원이고 2011년 100억으로 확대.

○ 운영방식은 함께 일하는 재단, 민생련, 열매나눔재단등 민간수행기관을 통해 추진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부사업

○ 영리법인형태의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하고 2010년 50억을 지원하고 2011년에는 100억으로 확대기로 함.

○ 지원방식은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와 '제조업분야 사회적기업의 경쟁력강화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실제 집행된 것은 4억 5천만에 그침.

□ 고용노동부의 모태펀드-미래에셋사회적기업투자펀드

○ 고용노동부 25억을 모태자본으로 하여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운영사가 되어 42억 규모의 사회적기업투자펀드 조합 결성

○ 기금중 60%는 사회적기업 관련분야에 투자하고 나머지 40%는 수익성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연평균 10억 미만 투자)

○ 투자방법은 CB, BW 발행으로 하고 조합 존속기간은 7년이고 투자기간은 4년, 회수기간은 3년으로 설정함

□ 관련분야

○ 지난 10년간 민간분야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시장규모가 누적 1500억 규모로 확대되어 왔으나 2009년 하반기 미소금융재단 출범 이후 정부주도 마이크로크레딧은 급증했으나 이에 반해 민간영역규모는 현저하게 감소추세 보이거나 퇴조현상.

○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기관과 지자체들이 매칭으로 2조 출연하여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10조를 보증하는 서민대출금융상품인 햇살론 출시했으나 정체상태.

○ 중소벤처 정책자금은 매칭펀드로 전환한 2005년 이후 6년간 총 1조 2,691억원의 씨드머니로 민간자본시장과 결합한 5조 규모의 투자조합펀드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

2) 민간차원의 금융지원 현황

-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사회공헌기금이 미소금융사업과 사회적기업으로 이동중
 - 금융기관의 사회공헌기금은 대부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집중되고 있음.
 - 대기업의 사회공헌기금은 미소금융중앙재단과 더불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등 투 트랙으로 추진되고 있음.
 - SK, 삼성, 현대차, LG전자, 효성, 강원랜드, 포스코, LH, 산업은행), 대우증권 등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조성 출연
- 기업의 사회공헌실태(전경련(2008), 사회공헌백서): 경상이익대비 사회공헌 비용이 '04년도 193개사 1.9%에서 '08년 208개사 4%로 증가 추세

<전경련 기부처별 기부현황>

(2008년, 백만원)

구분	자선출연 재단	시민단체 등 NGO	주요 모금단체	국가.지자 체	기타	총계
기부액 (백만원)	218,518	179,525	68,327	82,099	209,194	757,663

- 우리나라의 기부금 규모는 2000년을 전후하여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1999년의 2조 9천억원에서 2009년에는 9조6천1백억원으로 3.3배 이상 증가함.
- 2009년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부총액은 3조4천6백억원으로 지난 10여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기업의 경우 사회공헌차원의 기부금이 급속히 증가함.
- 최근 사회적책임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따라 기업들이 사회공헌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나, 적절한 투자처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사회적공헌의 한 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한 기금개발이 필요함.

3) 민간지원단체의 금융지원 현황

- 사회연대은행 소셜금융펀드 10억 조성, 씨즈 소셜벤처펀드 4억 조성운영, 소셜벤처인큐베이팅 Sopoong 50억 조성, D³ Jubilee, 사회투자지원재단 공동체기금등
- 옥션머니, 팝펀딩, 콘크리트등 온라인 SVC 투자모델 운영

□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부평 자활공제회, 건설공제조합등

□ 한살림, 두레생협, icoop 생협등 전국 3대 생협과 원주, 구로, 성남등 협동조합네트워크

2. 해외의 사회적기업 지원금융 현황

□ EU차원에서 520조 규모의 유럽소셜펀드(ESF,2017-2013) 조성하여 현재 120조 규모를 유럽각국과 지역에 매칭펀드로 지원.

ex)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에 ESF 4조 6천억에 영국정부 매칭자금 4조 6천억을 플러스한 9조 2천억이 투여됨.

□ 영국의 경우에는 퓨처빌더스펀드(CIC분야기금), 피닉스펀드(빈곤지역 지원펀드), Plunkett Foundation(농촌지역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지원), CAN 메자닌 펀드(제3섹터조직에 공동사무공간 임대사업), Unlimited 펀드(혁신적사회적기업가에게 공모시상제 지원금 제공), 빅소사이어티 은행, Charity Bank등 정책목표에 따른 정부기금과 민간금융 지원인프라 구축

□ 프랑스의 경우에는 국영금융기관기금(CDC기금;사회적경제와 지역개발지원,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 지원), France Active, France Initiative 등 마이크로파이낸스 펀드등 다양한 금융인프라 구축

□ 미국의 경우에는 SVP 인터내셔널, 아쇼카재단, 스킵재단, 드래퍼 리처드 재단, 에코잉 그린, 아쇼카재단, 아큐먼 펀드등 4만개의 재단과 지역재투자법(CRA법에 따른 공동체개발금융기구(CDFI)가 제3섹터와 사회적기업 육성을 프로모션.

□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마르코니 협동조합 기금, CGM 재정 컨소시엄 기금,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상업적 금융기관, 윤리은행, 사회적책임투자기금등 소셜금융 지원시스템 구축

□ 방글라데시아의 그라민뱅크, 그라민트러스트, PKSFP펀드(7천억 규모), 브라크(Brac) 등이 제3섹터와 사회적기업,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3. 주요국가의 소셜투자금융 사업분야

□ 소셜 투자·용자사업

-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에 소셜투자를 통해 창업과 기업성장 지원
- 금융투자와 경영컨설팅사업 병행연계
- * 미국의 소셜벤처캐피탈인 에코그린, 아쇼카재단, 드레퍼 리처드 재단, 켈버트 재단 벤치마킹

□ 멘토링 파트너스 사업

- 자선벤처와 경영파트너십 연계
- * SVP, CAN, 아쇼카재단, 씨즈 모델 벤치마킹

□ 다양한 사회적기업 모델링 및 리모델링사업

- 소셜프랜차이즈, 지역개발, 클러스트조성 등 프로젝트성 사회적기업
- * 영국의 'SEL', 'Plukett 재단'과 미국의 '칼리지서밋', '실리콘벨리 소셜벤처' 벤치마킹

□ 허브사업

- 제3섹터 및 소셜벤처기업들에게 공동의 사무 공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 * 영국의 CAN(Community Action Network), 더허브(The Hub) 벤치마킹

V. 사회적기업 금융정책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1. 사회적기업 금융정책의 추진배경

□ 국내외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사회문제 해결과 고용창출을 위한 최적의 대안 모델이자 21세기판 뉴딜을 선도하는 메가트렌드로 등장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일본등 주요 선진 국가에서 고용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의 임팩트이자 미래성장 동력으로 부상
- 국내에서도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 위한 '워킹 웰페어'와 지역공동체 재건과 사회통합의 뉴패러다임으로 등장
- 사회적기업 육성 시행 5년만에 사회적기업 532개, 예비사회적기업 1,005개등이 설립되고, 사회적기업 육성운동이 고용노동부에서 범부처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사회적기업부문에서 범국민적인 차원으로 확대.발전되고 있음.

□ **정부,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2008-2012)에서 민간자원 개발과 지자체 중심의 지역사회투자기관 육성.추진키로 함.**

- 대형비영리재단과 대기업 및 민간금융기관의 사회공헌기금으로 다양한 사회적기업지원 펀드 조성 추진
- 사회적기업의 상법상의 회사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창업자금, 신용보증제도 등 기존제도 활용 가능토록 하고 이후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법개정 추진키로 함.
- 지자체에 설치하는 복지재단에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별도 펀드를 구축하거나 지역새마을 금고 등을 활용하는 방안 강구하여 지역별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역투자기관 육성 추진

□ **정부, 지자체, 민간차원에서 사회적 금융을 사회적기업 성공의 핵심요소로 주목하고 소셜금융 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시작**

- 정부, 사회적기업투자펀드(42억)설립, 미소금융 100억, 중진공 100억, 새마을금고 희망드림론(300억규모), 500억 규모의 대출자금 조성하기로 함
- SK세상(500억), 삼성200억, 삼성 SGS, LG녹색에너지기금(25억), 효성 챌린저기금, 강원랜드(20억), 현대차(30억), 포스코, LH마을만들기(10억), 산업은행(10억), 대우증권(3억)등에서 사회적기업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조성 출연
-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지자체 차원에서 광의의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금(지역재단등)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도 풀뿌리기금, 소셜벤처캐피탈, 소셜금융, 소셜 P2P 펀드등이 개발되고 있음.

2. 사회적기업 금융정책의 필요성

□ **고용노동부형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농어촌공동체회사, 협동조합, 지역사회개발, 소셜비즈니스 등 다양한 사회적기업 개발에 필요한 투.융자와 프로젝트 지원을 담당할 지자체 차원의 투자펀드의 조성**

- 중앙정부예산에 의존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전략을 내올 수 없으므로 지역의 인프라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커뮤니티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 있음.
- 중앙정부로부터 권역별 위탁된 13개 중간지원기관 활동하고 있으나 지역적 임팩트가 약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지역밀착형 중간지원기관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 있음.

- 지자체 차원에서 SE, CB, 농어촌공동체회사, 협동조합, 소셜벤처등의 R&D역량 구축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기금 조성이 불가피한 상황 도래.

□ 사회적기업 금융으로 사회적기업의 혁신 촉진과 지속가능한 성장벨트 구축

- (지역,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 및 핵심역량 구축
- 전략적 프로젝트 사업군의 모델링 개발사업에 공공, 민간, 제3섹터에 걸친 자원 동원
- 소셜벤처 파트너십으로 다양한 벤처자산과 멘토링 역량 결합으로 사회적기업의 성장엔진 장착

□ 민관산학의 다양한 금융재원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소셜금융 TOOL을 개발

- 개인과 법인이 자유롭게 기부하고 투자할 수 있는 민관협력의 비영리 지역공익 재단 검토
- 사회공헌기금, 기부금, 후원금, 엔젤투자금, 사업수익등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의 개발
- 민간기업과 금융기관 등 민관산학의 금융 인프라를 소셜벨류체인으로 연계하여 금융, 경영, 마케팅 등 자원개발

VI. 지역기금 조성방안

1. 추진 필요성

- 충청남도가 향후 4년간 200개 사회적기업과 넓은 의미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추진하고자 할 시에, 도 예산 48억(국비매칭된 2011년 추정예산)규모 외에도 최소한매년 민간차원에서 50억 정도의 재원이 개발. 투여되어야 할 것임.

- 2011년 7월 현재, 충청남도 인증 사회적기업 17개, 예비사회적기업 63개이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정부가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자체형 사회적기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도예산 48억원은 대부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과 인건비지원에 투여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와 성장을 위한 투자는 전무한 상태임

- 고용노동부형 인증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와 농어촌 공동체개발, 커뮤니티 비즈니스, 소셜벤처등에 대한 전략적 개발을 위해서는 연간 50억 이상의 민간재원이 투여되어야 할 것임.

□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차별화된 지역경쟁시대로 돌입

- 중앙정부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시키고 앞으로 정책조정업무와 지원제도 마련 그리고 사회적 환경조성에 매진하기로 정책방향 설정
- 중앙정부 차원의 모태펀드 42억, 중진공, 미소금융, 새마을금고 등 500억 규모의 대출자금 조성하기로 했으나 추진속도 느리고 지역적으로 자금분배나 혜택이 미미함.
- 따라서 충청남도가 지역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의 핵심역량을 구축하고 지역특성형 사회적기업의 전국적 메카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독립적인 투.융자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함.

2. 지역기금의 TOOL에 대한 방안

□ 충남도청 산하기관에 지역기금을 설치하는 방안

- 관주도에 대한 논란 및 정치적 쟁점으로 사업추진 지연
- 지자체나 관주도로 기금사업 추진시 민간부문의 참여가능성 낮아 재원마련과 민간 참여 유도의 어려움이 예상됨.
- 운영상의 비효율성 증가로 공공예산(도비) 부담 증가

□ 민관협력의 독립적인 지역공익재단으로 지역기금을 설립하는 방안

-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관거버넌스형 지역재단을 설립을 추진한다.
- 민관파트너십으로 민간재원 참여의 명분과 실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기업의 사회공헌 기부금이나 출연금 조성 가능한 것이 장점
- 충청남도는 민간공익재단의 마중물(씨드머니)로 지역기금의 30%(또는 50%)를 출연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자원 개발을 최대화한다.
- 지역내의 공익재단, 기업, 대학, 기업재단, 농협, 신협, 수협,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등들도 매칭방식으로 출연.참여

3. 지역기금의 법적형태별 장단점과 주요특징

□ 장단점 비교

구성	재단법인	사단법인	유한회사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시장이 기피하는 사업을 효율성을 최적화한 방식으로 사회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조세혜택, 사회적자원 동원, 다양한 네트워킹에 유리함 ○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은 사회적 자본으로 사회공익목적의 기금 TOOL로 적합하며 다른 재단이나 창투사등과 연계하여 투자펀드나 모태펀드 참여가능 ○사단법인과 달리 공익사업에 필요한 기부금 조성과 사회목적 투자유치에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시장이 기피하는 사업을 효율성을 최적화한 방식으로 사회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금융과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약하나 사회적 마인드와 다양한 네트워킹에 익숙함.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시에는 법인 10%, 개인 30% 소득공제 ○법정기부금단체시 등록시 법인 50%, 개인 100%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의 출자자들로 경영되는 중소기업, 펀드, 투자회사 등의 기업형태에 적당 ○ 빠른 의사결정으로 사업진행의 원활 ○ 금융분야 사회적기업으로 설립할 경우 민간주도형 혁신모델 가능 ○ 단일유형의 모태펀드결성만 가능 ○PEF식 투자조합결성가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 참가자격 없으나 창투사와 컨소시엄 구성하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민주적 의사결정구조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늦고 사단구조로 인하여 책임성이 떨어지는 약점을 가지고 있음. ○ 재단법인에 비해 기부금 조성과 사회목적 투자유치에 불리 ○ 모태펀드 참가자격 없음. ○ 투자조합결성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VC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투자성 SVC조달 인프라 취약 ○ 국내 정서상 기부금 조성과 사회목적 투자유치에 불리 ○단일투자조합만 결성가능하고 다모델조합 허용은 창투사 라이선스 필요 ○지역차원의 경험과 정서상 적합지 않음

□ 주요특징 비교

구 성	재단법인	사단법인	유한회사등
법적근거	민법32조에 의거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특수법인(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등), 특별법에 의한 법인적용을 받는 다양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설립(민법 32조 의거)	
형태	특별법의거 관 주도형	휴먼에듀관리재단 미소금융재단 각종공적기금	2011년 3월 11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회의 통과 2012년 4월경부터 시행
	민관파트너쉽형	함께일하는재단 노사발전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주도형	아름다운재단, 환경재단, 사회투자지원재단 기업재단	
	종교재단형	열매나눔재단, 해피월드복지재단	
기부금 세금공제 사항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및 지방세 등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대상이나 조특법 폐지되고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로 이원화함.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신청 및 허가	

□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

- 2010년 조세특례법상의 기부특례제도 폐지되고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로 이원화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등 100% 기부금 소득공제 적용)
-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 및 허가 추진(2011년 7월 1일부터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시 개인은 30%, 법인은 10% 소득공제 적용)
- * 지정기부금 단체는 주무관청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는데 법인설립허가, 등기, 홈페이지 개설등 추천요건과 제출서류등 요건충족기간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함.
- * 사회적기업투자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라 법정기부금단체로 격상하여 추진하는 것 검토필요(미소금융중앙재단은 법정기부금 단체 등록 추진중)

4. 효과적인 지역기금 설립방안

- 충청남도 지역재단을 민법상 재단법인이며 공익법인으로 설립(민법32조,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한다.
- 충청남도가 씨드머니를 출연하고 지역의 민간역량이 참여하는 민관파트너십 방식의 비영리 민간공익재단방식으로 지역기금(재단)을 설립한다.
- 충청남도는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 '(가칭)충남사회적기업투자재단'에 씨드머니 기금 출연하고 민간기업들과 지역의 공익재단들 역시 컨소시엄 법인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 충남도 차원에서 지역재단 설립에 대한 정책, 예산, 사업조정등은 경제통상실이 총괄하고 정책실행과 집행등은 충남발전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도차원의 T/F단을 구성하여 추진한다.
- 충남도내 4개 시.군의 대기업 참여를 네트워크화하고 지역기반의 협동조합금융기관인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직한다.
- 충청남도 산하 16시군에 대해서는 출연단계 또는 사업집행단계에서 매칭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시군의 자발성과 협동적 경쟁을 견인하도록 한다.

5. 재원조달 방안

□ 출연금

- 2012년도에 50억 규모의 재단 출연금 확보로 재단운영의 안정성 확보
- 충남 30%(50%), 관내금융기관 30%, 대기업 40%, 민간재단 9%, 일반시민, 충남 출신 기업인등으로부터 출연
- 매년 재단 출연금 30%씩 증액발행
- 대기업이 유치된 4개 시.군의 기업들과 관내 금융기관및 협동조합금융기관, 민간시민, 중소기업인등 다양한 곳으로부터 자원개발

□ 사업재원

- 2012년도부터 연간 50억 이상의 기탁금, 위탁금, 컨소시엄자금 등 운영자산 확보하여 사업추진
- 2012년도부터 충청남도과 민간지역재단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풀뿌리 민간기금 모금운동 전개로 지속적인 사업재원 확보

□ 재원의 구성

구분	내용	비고
기부금	상환의무가 없는 재원으로 개인, 민간, 공공 부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또는 일회적으로 조성된 자금	
출연금	상환의무가 없는 재원으로 공공부문으로부터 조성한 출연금	
위탁금	상환의무가 없는 재원으로 개인, 민간, 공공 부문으로부터 받은 위탁자금	
기타자금	수익사업에서 얻은 자원	

6. 지역공익재단 설립의 타당성-왜 민간공익재단방식의 지역재단인가?

- 지자체, 기업, 서민금융, 민간협회등 다양한 섹터의 자원과 자원의 펀드레이징에 효과적이며 대의명분과 실리 두가지를 모두 확보할 수 있음.
- 공익적 미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합한 법적형태로 조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음
- 수입구조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특히 기부금 출연시 15% 운영비 활용으로 재단운영의 비용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음
- 제도권 금융과 제3섹터와 사회적기업을 연결하는 브릿지 케피탈로 사회적기업 부문의 대안적 IB기능을 담당하는데 적합한 모델임
- 인내자본, 벤처자선 등 장기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고 장기적인 프로젝트 사업에 유리함

7. 운영방향

- 지역차원의 펀드레이징, 자산운영, 컨설팅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금융컨설팅 재단으로 포지션화
- 비영리공익재단으로 비영리, 공익성을 추구하지만 조직운영에 기업가적 경영기법 적용
- 비영리민간공익재단 취지에 맞게 이사회 구성도 50% 이상을 민간부문에 할애하여 관 주도 지역재단이 아닌 민관거버넌스형 지역재단으로 디자인화.
- 민관산학간에는 물론 16개 시군과도 매칭펀드 전략으로 협력과 경쟁의 원리 도입하여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정신 고취 및 자강자립역량 강화
- 지역사회 중심으로 지역역량 강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 지원
- 재단운영의 공정성,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하여 지속적인 자원개발 확보
- 펀드레이징과 법정기부금 단체지정에 유리한 비영리공익재단 법인으로 출발
- 지역재단 우산속 포토폴리오 구성이라는 방식으로 기금운영모델 설계하여 기금별로 사회적 명분과 가치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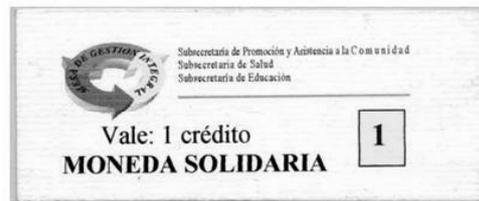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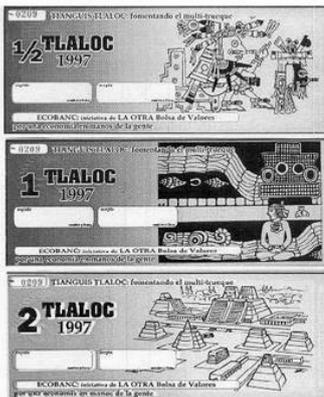
**한밭리츠의 사례로보는 지역통화
운동의 가능성**

김 성 훈
[민들레의료생협 이사]

한발레츠의 사례로보는 지역통화 운동의 가능성

한국의료생협연대 정책위원
한발레츠 대외협력실장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트레이너
김성훈

왜 지역통화 운동을 하는가?



지역공동체가 한발레츠

현실의 돈

- 만약 미국인이 끝까지 민간은행으로 하여금 국가의 화폐발행을 통제하도록 둔다면 이들 은행은 먼저 통화 팽창을 이용하고 이어서 통화 긴축 정책을 써서 국민의 재산을 박탈할 것이다. 이런 행위는 어느 날 아침 그들의 손자들이 자기의 터전과 선조가 개척한 땅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제 3대 미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 연속되는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정부는 비밀리에 국민의 재산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쓰면 마음대로 국민의 재산을 뺏아올 수 있다. 다수가 가난해지는 과정에서 소수는 벼락부자가 된다 -경제학자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 만일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가 태어났을 때 미 달러로 1달러를 연리 5% 복리로 예금하고 있었을 경우 1990년 시점에서 지구 체적의 1340 억 배에 달하는 예금 잔고를 갖게 될 것이다.
-독일 지역통화 네트워크(Regio) 마그리트 케네디(Margrit Kennedy)

지역화폐이한발레츠

사회의 부는 어떻게 이전하는가?

은행이 부분 준비금 제도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수표 화폐는 가짜 돈을 몰래 찍어내는 것과 같다. 이 '가짜 돈'을 처음 받은 사람은 먼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싹컷 음식을 시켜 먹는다. 최초로 가짜 돈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시장 물가가 원래의 수준이므로 그의 손에 있는 가짜 돈을 종전과 똑같은 구매력을 지닌다.

레스토랑 주인은 가짜 돈을 받아 옷을 한 벌 사 입음으로써 두 번째 수익자가 된다. 이때 가짜 돈의 유통량은 아직 시장에서 나타날 정도가 아니므로 물가는 아직 변동이 없다. 그러나 가짜 돈이 유통되면서 시장에서는 그 영향이 나타나고 물가는 점점 상승하게 된다.

가장 재수가 없는 사람은 가짜 돈을 손에 넣기 전에 물가가 전면적으로 상승해 버린 경우다. 그들의 손에 있던 돈은 물가가 상승하면서 점차 구매력을 잃어버린다. 즉 가짜 돈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덕을 보며, 그 돈을 늦게 손에 넣는 사람은 손해라는 이야기다. 현대의 은행 제도에서는 부동산이 은행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덕을 본다. 반면에 노인연금에 의지해 살아가거나 착실히 저축을 해온 사람들은 가장 큰 피해자들이다. 따라서 통화 팽창의 과정은 곧 사회의 부가 이전되는 과정이다. 이

사이에서 은행 시스템과 멀리 있는 가정은 재산의 손실을 본다. (화폐전쟁, 송홍빈)

지역화폐이한발레츠

지역화폐란?

지역화폐란,

한정된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사용하여 그 지역내의 돈을 순환시킴으로써 경제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꾀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로 인해 붕괴되고 있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베 요시히로, 2003)

지역공동체한발레츠

지역통화의 의미

- 미합중국달러는 세계의 가장 큰 빚쟁이가 아무런 실질적 토대도 없이 발행하는 영터리 지폐이지만 이타카 아워즈는 우리가 약속을 나눌 수 있는 실제 현실의 사람들의 시간과 기술에 근거하고 있다.
-이타카 아우어 창시자 폴 글로버(Paul Glover)
- 사람들이 지역화폐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지로 거래의 방법을 창조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역통화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람들의 복지, 문화적 주체성, 상호간의 신뢰 그리고 경제적 교환을 통해서 이웃과 관계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이 땅에는 정당하고 민주적인 방식의 화폐 체계를 통해 스스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 지역통화 네트워크(Regio) 마그릿 케네디(Margrit Kennedy)
- 저는, 여러분이 지역 문제들을 대안화폐와 더불어 다루려는 5천여 공동체를 포함하는 세계 운동의 일부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안화폐 운동은, 여러분 사이에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관계를 창출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안화폐는 가치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 차제만으로 혁명적이며, 보다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버나드 레에터(Bernard Lietaer)

지역공동체한발레츠

물신숭배를 넘어서

- 인간은 누구나 공동체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과거의 공동체가 우애와 연대의 공동체였다면 현재의 공동체는 화폐에 의존한 화폐 공동체이다. 화폐 공동체에서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돈에 의존하고 돈으로 관계 맺는다. 그래서 돈이란 노동과 물품을 교환할 대상, 즉 이웃, 공동체가 없이는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잊는다.
- 공동체를 위해 돈이 기능해야 함에도 돈을 위해 공동체가 이용되는 것, 이것이 이른바 물신주의이며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비극의 전주곡이다.
- 현재의 돈이 '돈을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지역화폐는 '당신과 당신의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 것에서 출발한다.

지역공동체한발레츠

레츠 시스템의 이해

- 특정 지역내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회원 사이에만 통용되는 화폐를 통해 노동과 물품을 교환하는 제도.
- 거래자 자신이 스스로 계정에 기록되는 가상의 화폐를 발행함.
- 우애와 연대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에 큰 효과가 있으나 초기 공동체 기반이 없으면 시스템이 존속할 수 없음.
- 다른 지역통화에 비해 경제적 효과는 미흡하나 레츠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운동을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토대가 됨.

지역공동체한발레츠

레츠 시스템의 이해

-(요청)	+(제공)

지역 품앗이 한발레츠

거래 방식

■ 지폐 방식



■ 통장 방식



■ 계정 방식

일	두루받은여 두루주는여	내용	두루	원금	
08월 01일	유자희	김필순	공기청정기	15000	
08월 01일	김승희	박희숙2	병원진료	3000	
08월 01일	김승희	이승훈	병원진료	3000	
08월 01일	김승희	박연주	병원진료	3000	
08월 01일	이종현	변수미	교육비(독서지도)	30000	
08월 01일	이종현	박선희	교육비(독서지도)	20000	
08월 07일	김보희	임효영	고추기름	20000	
08월 09일	심경이	조희	자전거	70000	
08월 10일	조희	문연환	교육비(영어)	50000	
08월 14일	이영미	고연	아이스	5000	
08월 14일	고연	정영현	가스통	10000	
08월 22일	최정희	황관영	영합	36000	84000
08월 24일	나은식	고연	물	3000	30000
08월 24일	한발레츠	박희숙2	비누	5000	10000
08월 24일	노선희	박희숙2	옷	5000	
08월 25일	한발레츠	이혜순	책대여	1500	
08월 27일	고연	김혜영	스카프	10000	15000
08월 29일	최정희	조희	영합회1	12000	28000
08월 29일	심경이	손병희	가방	1000	
08월 29일	고연	이경자	보관료	3000	
08월 29일	이혜경	이경자	보관료	5000	
08월 29일	박진호	문연환	자동차경비	20000	330000
08월 29일	박진호	김정숙	모니터	10000	10000
08월 30일	한발레츠	변수미	중앙이학교(16일)	10000	

지역 품앗이 한발레츠

한발레츠가 걸어온 길

▪ 99년 10월' 회원모집 시작

▪ 00년 2월' 70여 명의 회원이 모여 창립총회

▪ 01년 5월' 대전의 제 21 추진협의회로부터 독립하여 운영하기 시작



지역품앗이한발레츠



▪ 02년 4월' 대전민들레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약칭 민들레의료생활협) 창립 (한발레츠 회원 주도)



지역품앗이한발레츠

한발레츠 현황

- **단체명:**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HanBat LETS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s))
- **지역화폐 명칭:** 두루(법정화폐 단위인 '원'과 동가, 1,000두루=1,000원)
- **화폐 발행방법:** 신용에 토대를 두고 회원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발행
- **지역화폐 도입시기:** 99년 10월에 준비하고 2000년 2월 1일에 창립함
- **회원 및 회원 업소:** 600여명, 회원 업소: 60여 곳
- **회원의 연령대(많은 순으로 나열):** 30대-40대-20대-50대-60대-10대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공동체화폐 “두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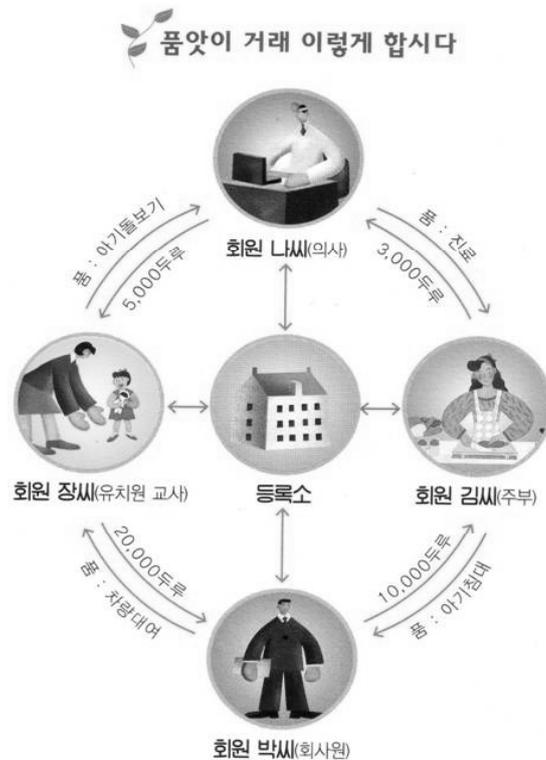
- 한발레츠 내 회원들간에만 통용되는 화폐단위로 모두에게 ‘두루두루 도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 모든 물품이나 서비스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현금 대신 사용합니다.
- 액수는 거래 당사자들이 정하게 되며 현금화폐와 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1,000두루=1,000원)
- 현금과 두루를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현금과 두루를 교환하지는 않습니다.
- 거래총액의 두루비율은 30%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거래가 이루어 지는 과정

- ① 회원가입: 전화, 인터넷 가입 후 신입회원 교육을 받고 자필 가입서 작성 (월 5,000원, 3,000원+2,000두루, 5,000두루 중 선택)
- ② 거래신청: 한발레츠 등록소에 제공, 혹은 요청할 물품이나 서비스를 등록한다.
- ③ 거래하기: 홈페이지, 회원행사 등을 통해 회원간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 ④ 거래성사 알림: 거래를 마친 회원 중 두루를 번 사람이 거래내역을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등록소에 거래신청을 한다.
- ⑤ 계좌정리와 공지: 등록소는 회원의 거래 내역을 정리, 기록한다.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두루거래현황

년도	건수	두루거래액(A)	거래총액(B)	A/B(%)	평균두루비율 (%)
2000	287	4,866,000	10,293,900	47.3	81.4
2001	553	8,813,300	17,490,800	50.4	59.9
2002	1,503	28,403,130	48,896,580	58.1	78.1
2003	2,674	37,516,285	74,472,225	50.4	75.3
2004	4,919	53,211,295	94,256,790	56.5	73.7
2005	4,745	65,160,426	121,275,676	53.7	77.2
2006	5,520	56,637,340	93,008,690	60.9	79.0
2007	7,557	73,737,090	142,736,840	51.7	69.9
2008	10,569	96,016,220	181,153,230	53.0	62.0

지역품앗이한발레츠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 시스템, 거래 상대방을 알지 못한다.
=> 대안: 품앗이 만찬, 품앗이 학교, 일상적 만남 등 공동체 활동
- 거래 방식이 불편하다.
=> 대안: 웹 계정관리 프로그램(두레생협연합회의 선물 사이트)
- 거래할만한 것이 없다.
=> 대안: 생활에 밀접하면서도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병원, 식당, 미용실 등)

지역품앗이한발레츠

분류별 거래현황

농산물>의료>가맹점>재활용>월회비>자원활동>교육>제작물품>후원

구분	2008년 거래횟수	평균 두루 비율(%)	2007년 거래횟수
농산물	2,338	16.9	1,636
의료	1,742	89.9	1,466
가맹점	1,292	61.2	1,071
재활용	1,168	96.6	602
생산소모임	-		596
교육	562		278
제작물품	319		80
품	163		71

구분	2008년 거래횟수	평균 두루 비율(%)	2007년 거래횟수
대여	102		25
후원	236		18
자원활동	895		335
월회비	1,130		1,174
급여	201		179
기타	191		81
소계	10,569		7,557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한발레츠로 부터 의료생협까지

- 한발레츠 설립 초기 한방의사가 가입함으로 써 거래 활성화에 기여(보험진료시 본인부담금 전액 두루, 비보험 진료 50% 두루 적용)
- 얼마후 양방의사가 가입하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사들이 참여
- 의사라는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이웃으로서, 생활인으로서 공동체를 이룸
-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신뢰관계를 통해 의료생협을 설립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의료생협의 지역화폐 사용

- 설립 초기 이사회에서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의료생협에서의 지역화폐 사용을 유보
- 한발레츠 회원 출신의 의료생협 직원들이 월급의 20% 가량을 지역화폐로 받기로 결의함에 따라 의료생협에서 본격적인 지역화폐로 진료비 계산
- 현재는 급여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받기를 희망하는 직원이 증가하고 조합원의 활동에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고 있음.

지역꽃앗이 한발레츠

새로운 도전-건강화폐

- 독일의 보건의료기획자이자 지역통화 연구자인 스테판 브룬후버(Stefan Brunnhuber) 박사의 제안에 따라 건강화폐 시작
- 의료보험회사는 가능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싶어 한다.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이 질병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고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 건강 교육과 생활습관을 건전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건강 교육을 받거나 살빼기를 실천할 때 그 대가로 건강 화폐를 주자고 제안했다. 의료보험료를 내는 지역주민들이 건강 화폐를 모아 의료보험회사에 주면 그만큼 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 야채가게 등의 회원업소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도 있다.

지역꽃앗이 한발레츠

의료생협에서의 지역화폐 사용현황

구분	항목	금액(두루)
수입 20,495,110 두루	의원/한의원/치과 진료수입 후원금/장비대여/식대등	20,495,110
지출 18,498,500 두루	급여	6,450,000
	자원활동	3,735,000
	건강증진활동	1,765,000
	이사회 활동	2,840,000
	위원회 활동	1,100,000
	대의원 활동	415,000
	인쇄출판비	1,038,000
	소모품 구입	93,500
	식료품 구입	162,000
	기타 지출	900,000
수지합계	수입-지출	1,996,610

지역품앗이한발레츠

품앗이 놀이

1. 정의

-품앗이 놀이는 자신이 요청할 것과 제공할 것을 공동체에 공개하여, 이것을 나누고 협동할 수 있도록 참여자 스스로 역할을 분담하고 공동의 규칙을 만드는 공동체 회의를 말한다.

2. 개념

-이것은 특히 지역화폐 운동의 한 형태인 레츠 LETS(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의 운영방식을 따른다. 따라서 품앗이 놀이의 영문 표기는 레츠를 하자는 의미로 <레츠를 하자(Let's LETS)>라고 부르기로 한다.

3. 의의

-이웃이 서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를 알게 된다.

-돈에 가려 의식하지 못하던 사람, 자연 그것들 사이의 관계가 드러난다.

-자연스럽게 이웃과 사귀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 이웃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2~3시간의 워크숍을 통해 레츠 시스템을 이해하고 바로 실행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품앗이한발레츠

워크숍 준비

1. 인원확보: 거래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위해 적어도 20인 이상 참여
2. 장소확보: 20인 이상이 참여하여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아늑하고 집중된 공간
3. 배치: 서로 마주볼 수 있는 원탁형 배치가 이상적임.
4. 시간확보: 2시간 30분~3시간
5. 장비와 기자재: 한발레츠 다큐멘터리 파일, 동영상 상영에 필요한 장비 일체, 칠판
6. 소도구: 필기도구, 메모지, 전지

지역품앗이한발레츠

품앗이 놀이 진행방법

1. 서로 뜻과 마음을 모으고 부르기 쉬운 돈의 이름을 정한다. (마을의 상징, 특산물, 모임의 비전 등을 담은 말)
2. 요청할 것을 각자 적어 발표한 후 서로 보완한다.
3. 제공할 것을 각자 적어 발표한 후 서로 보완한다.
4. 이 모두를 한 곳에 모아 품앗이 목록을 만든다.
 - 요청목록과 제공목록을 한데 묶어 정해진 장소에 게시하거나 간단한 문서를 만든다.
 -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어도 좋다.
 - 이 일을 진행할 거래목록 관리자를 정한다.

지역품앗이한발레츠

품앗이 놀이 진행방법

- 5) 요청목록과 제공목록을 대조하여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을 찾는다.
- 6) 찾아낸 것 중 하나를 선정하여 제공자와 요청자를 초대하여 역할극을 한다.
-연락방법, 인사, 나눌 내용 확인, 금액 정하고 합의하기 등을 상황을 주고 직접 역할에 따라 행동해 본다.
- 7) 거래 후 계정정리를 위하여 계정관리자를 정한다. 거래목록 관리자와 겸임할 수 있다.
- 8) 계정관리자가 왜,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계원 모두가 토론하고 합의한다.
- 9) 계정관리자와 약속된 거래 보고자(주로는 제공자)가 다시 역할극을 한다. 거래 일시, 요청자, 제공자, 거래품목, 거래 금액은 필수 기록 항목이 된다.

지역품앗이한발레츠

시사점

- 지역통화운동중 레츠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설계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쉽게 시작할 수 있음
- 레츠는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공동체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으면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역설의 상황이 있음
- 시스템 측면에서 보자면 ‘-’계정을 허용하는 만큼 신뢰관계, 지역통화운동의 취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
- 따라서 이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소개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지역사회 조직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초기 시스템 구축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과 함께 이 일을 시작한다면 훨씬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지역품앗이한발레츠

호혜시장은 이미 부활하고 있다
-한발레츠와 민들레의료생협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 성 훈
[민들레의료생협 이사]

호혜시장은 이미 부활하고 있다

-한발레츠와 민들레의료생협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성훈¹⁾

“성(聖)스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호혜시장(reciprocity market)을 택하는 것은 결국 인간을 책망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²⁾ -노자-

1. 호혜시장으로서의 지역통화운동

지역통화운동의 하나인 레츠(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는 1983년 캐나다 벤쿠버시 코목스 밸리라는 조그마한 섬마을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이 지역에 경제 불황이 닥치자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마이클린튼은 6명의 회원을 모아 법정화폐가 아닌 녹색 달러를 발행하여 서로의 노동과 기술, 재화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시스템은 전세계로 급속하게 퍼져 수천개의 레츠가 만들어졌다. 특히 호주의 경우는 국가 수상이 직접 나서 레츠를 국가 전역에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한다. 레츠 활동가인 패트리샤 녹스는, “만약 세계 경제가 붕괴한다면 호주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번창하는 대안적 경제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다.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에 대항하여 IMF와 세계은행을 탈퇴한 베네수엘라의 유고 차베스 대통령은 신대중경제법을 제정하여 지역통화와 화폐가 필요없는 지역교환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체계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를 경고하며 인터넷을 통해 신화로 추앙받던 필명 미네르바(박대성)는 2008년 9월 ‘IMF2의 마지막 생존법’ 이란 글을 통해 살인적인 고물가와 실업률, 자산가치의 폭락을 막을 유일한 해법으로 지역통화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역통화운동에 대한 관심은 역설적이게도 현재 지구화된 자본주의 화폐경제시스템의 폐해로부터 비롯된다. 지역통화운동이란 한마디로 말하자면 돈으로부터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발행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화된 자본주의 화폐경제 시스템의 폐해를 요약하자면 다음의 세가지로 정리할

1) 민들레의료생협 조직지원부장, 한발레츠 대외협력실장,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트레이너

2) “성인집좌계이불책어인(聖人執左契而不責於人)”, 시장으로써 좌계(左契)의 뜻은 계(契), 즉 호혜씨클(reciprocity circle)을 보좌하는 시장이란 뜻이며, 반면 교환시장을 노자(老子)는 우철(右徹)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세금을 걷는 것을 돕기 위해서 만든 시장’이란 뜻. 김영래의 “마-차례(祭天)(2) : 부채 청산(清算)과 신시(神市)”에서 인용

수 있다. 첫째 사익추구집단에 의한 화폐발행권의 독점, 둘째 이자 등으로 인한 부의 소수 집중과 양극화, 셋째 화폐 부족으로 인한 대립과 경쟁관계의 심화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양심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화두는, ‘지구화된 자본주의 화폐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맑스-레닌에 의해 주창된 민중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은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력의 성격을 먼저 바꾸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경제 구조 자체를 민주화하고 사회화하는 실천과 경험없이 정치권력을 바꾸기 어려울뿐더러 우연히 그러한 상황이 도래한다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혁명이라는 것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를 민주화하고 사회화하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협동조합, 연대금융, 지역통화이다. 협동조합은 사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소유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토대로 공공의 가치를 우선하는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연대금융은 이윤논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대안으로 부의 집중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 자본을 형성하여 자립적 지역경제를 구축하고 소외계층에게 자활과 재활의 기회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지역통화는 시민이 직접 화폐발행을 함으로써 경쟁과 약탈의 교환이 아닌 우애와 연대의 인간관계를 통해 호혜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칼 폴라니의 논리를 빌어 말하자면, '경제에 파묻힌 사회'에서 '경제를 사회에 재매몰시키는 운동'이기도 하다. 또한 역사적으로 경제에 존재해왔던 '호혜-재분배-교환'의 기능중에서 호혜와 재분배의 기능을 되살려놓음을 통해 사회와 자연을 지키려는 전략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일본의 경제학자 가라타니 고진의 NAM(New Association Movement)이 있다. 가라타니 고진은 새로운 관계운동으로서 생산자/소비자 협동조합운동, 자본재 생산품을 사지 않는 보이콧운동, 레츠(LETS)를 제안한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운동은 원시반본을 통해 훨씬 풍부한 대안을 발견할 수 있다. 신시와 화백의 재야 연구자인 좌계 김영래씨의 연구를 인용하며 김지하는 신시를 이를 호혜와 교환, 획기적 재분배 시스템으로 소개한다. 김영래씨는 노자의 글을 인용하여 “교환시장은 결국 사회적 축적이 없이 개인적 축적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호혜시장은 사회적 축적이 있다. (사철무덕(司徹無德) 사계유덕(司契有德)” 고 말한다. 그는 빛에 쫓들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돈을 만들어가며 빛을 갚을 수 있는 호혜시장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거래는 단지 교환이 아니며 서로 살리는 호혜의 기능과 파산한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재분배의 기능을 하는 신시와 같은 호혜시장을 되살려야 사람들이 서로를 책망하지 않고 서로를 보살피고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

II. 한국에서의 지역통화운동

한국에서의 레츠는 1996년 녹색평론에서 처음 소개된 이후,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대전에서는 1999년 당시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처장이었던 박용남씨에 의해 시작되었다. 한발레츠는 현재 한국의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며 지역통화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준 단체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발레츠는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성공한 사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망하지 않고 조금씩 성장하는 단체라고는 말할 수 있다. 한발레츠가 만들어 지던 1999년과 2000년 즈음 20여개의 지역통화 단체가 있었지만 그 대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발레츠와 더불어 지역통화운동의 명맥을 유지하며 꾸준히 성장하는 단체로는 과천품앗이가 있다.

한발레츠 역시 1997년 외환위기로부터 교훈을 얻어 시작하였듯이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지역통화에 대한 관심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한국사회에 일고 있는 사회적 경제운동의 대유행과 맞물려 전국의 지역통화단체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전국의 지역통화단체는 30여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아직 전해 듣지 못한 곳 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추세를 감안한다면 2~3년 안에 100개 이상의 지역통화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90년대 말 시도되었던 지역통화운동단체 보다 현재 시도하는 공동체들은 훨씬 더 지역 사회와 생활에 밀착된 활동을 전개해온 경험이 있어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발레츠를 뛰어넘는 모델이 여러 곳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II. 한발레츠에서 민들레의료생협까지

한발레츠 초기에는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다른 지역통화운동단체와 마찬가지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사람들은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하였지만 막상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거래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협력을 통해 서로 이익이 되는 상황이 아닌 더욱 불리한 상황을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다. 불신을 전제로 이기적으로 거래해야 이익이 되는 교환시장의 논리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호혜시장의 원리를 따르는 레츠를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다. 2000년 한 해 동안 회원 70여명의 총 거래 건수가 287건이었다. 거래를 늘리기 위한 방향은 두가지였다. 그중의 하나는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으며 또 하나는 거래할 만한 것을 시스템 내부로 들이는 것이었다.

한발레츠의 경우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한의사가 가입하고 얼마 후 지역공동체 운동에 뜻을 둔 레스토랑이 가입하였다. 연이어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부가 가입하면서 선순환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어 먹는 품앗이 만찬을 통해 더욱 가까워졌다. 얼마후 의료계의 파란을 일으킨 의약분업 논란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양방의사까지 가세한 의료인들과 회원들도 연일 토론이 계속되었다. 특히 새로 가입한 내과 전문의 나준식 회원은 당시 징병검사의사로 있으면서 의사로서가 아니라 아

이 돌을 키우는 생활인으로서 레츠회원들과 관계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깊은 신망을 받았다. 회원들은 그의 건강상담을 지역화폐로 거래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여러 생활재와 노동력을 주고 받으면서 일상적으로 건강상담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밤늦게 갑자기 아이가 고열에 시달린다거나 본인이나 가족중 심각한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늘 그를 찾아 상담하곤 하였다. 레츠 회원들은 믿을 수 있는 의료인들이 레츠에 존재한다는 것이 큰 자부심이 되었다. 국가의 의료제도가 부적절하다면 우리는 레츠를 통해 만들어진 공동체의 힘으로 바른 의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나준식씨와 같은 주치의 역할을 해주던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의료생협이다.

의료생협이 만들어진 이후 거래는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발레츠는 2009년 현재 400여명이 회원이 1만 5천건 이상의 지역화폐 거래를 하고 있다. 의료생협은 현재 약 1300세대의 조합원이 6억원 정도의 자산을 운용하며, 의원, 한의원, 치과, 노인복지센터, 심리상담센터, 친환경농촌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7개의 조합원 건강모듬이 있다. 의료생협의 경우, 2008년 한 해 동은 2천만 두루의 수입이 있었으며 이러한 수입은 직원의 급여와 생활재 구입, 출판물 인쇄, 조직활동비로 거의 지출하면서 새로이 건강화폐 ‘조각’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전에서는 마을어린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동단위 품앗이 공동체가 약 5곳이 새롭게 설립되었으며 최근 지역의 사회적 경제운동 단체들과 연대하여 독일의 지역화폐중의 하나인 김가우어 시스템을 접목한 호혜시장 네트워크를 준비중에 있다.

2009년 11월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 2회 아시아 연대경제포럼에서는 ‘지역통화와 의료생협’이란 주제로 사례발표를 하였는데 참여자들의 깊은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IV. 품앗이 놀이

2008년 1월 <품앗이 놀이>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지역통화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품앗이 놀이는 특히 시스템 설계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어떤 공동체나 쉽게 적용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퍼진 지역통화 시스템중의 하나인 레츠를 모형으로 하였다. 한 지역에 지역통화운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 10명 이상 모였다면 2~3시간의 공동작업(Workshop)으로 바로 이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간 한발레츠를 방문하거나 지역통화운동을 하고자 하는 공동체에 수백회 방문을 하였지만 막상 시작하는 단체는 드물었다. 한발레츠는 처음부터 이론가와 전업활동가가 있었으며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가 산파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한발레츠와 같은 조건을 갖지 못한 공동체에게는 오히려 시작을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레츠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색다른 시스템이 아니라, 전통사회속에서 품앗이나, 두레, 계 등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삶의 밑바탕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보살핌과 배려, 나눔과 협동으로 작동하는 사랑의 경제를 부활하는 운동인 것이다. 그동안 다양한 공동체에서 50회 이상의

품앗이 놀이를 진행해보았다. 품앗이 놀이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웃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었다. 나아가 탁월한 이론가가나 전업활동가 없이도 우리도 레츠를 한번 해보자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품앗이 놀이의 설계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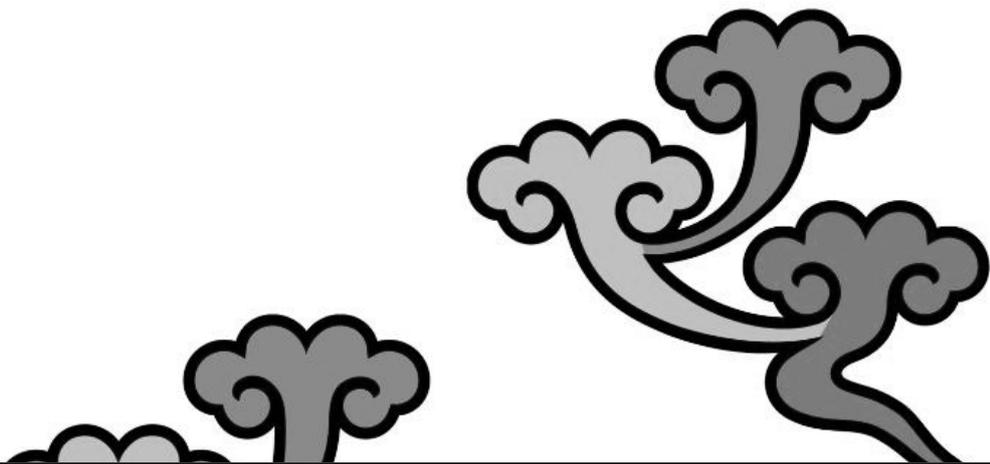
1. 서로 뜻과 마음을 모으고 부르기 쉬운 돈의 이름을 정한다. (마을의 상징, 특산물, 살림계의 비전 등을 담은 말)
2. 각자 요청할 것을 5가지 이상 적어 모두 발표하고 잘 경청한다.
3. 각자 제공할 것을 5가지 이상 적어 모두 발표하고 잘 경청한다.
4. 이 모두를 전지에 붙여 한 곳에 모아 품앗이 목록을 만든다.
 - 요청목록과 제공목록을 한데 묶어 정해진 장소에 게시하거나 간단한 문서를 만든다.
 -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어도 좋다.
 - 이 일을 진행할 거래목록 관리자를 정한다.
5. 요청목록과 제공목록을 대조하여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을 찾는다.
6. 찾아낸 것 중 하나를 선정하여 제공자와 요청자를 초대하여 역할극을 한다.
 - 연락방법, 인사, 나눌 내용 확인, 금액 정하고 합의하기 등을 상황을 주고 직접 역할에 따라 행동해 본다.
7. 거래 후 계정정리를 위하여 계정관리자를 정한다. 거래목록 관리자와 겸임할 수 있다.
8. 계정관리자가 왜,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를 계원 모두가 토론하고 합의한다.
9. 계정관리자와 약속된 거래 보고자(주로는 제공자)가 다시 역할극을 한다. 거래일시, 요청자, 제공자, 거래품목, 거래금액은 필수 기록 항목이 된다.

V. 나오며

작년에는 그동안 의료생협 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협동조합 놀이를 만들었다. 품앗이 놀이가 개인간의 거래라면 협동조합놀이는 일종의 두레로서 호혜시장의 복원을 보다 손쉽고도 즐겁게 시작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국의 모든 마을에서, 나아가 전세계의 모든 마을에서 레츠와 같은 품앗이 공동체, 삶의 전반에 제기되는 문제를 협동조합 운영원리로 풀어가는 두레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혁명일 것이다. 누가 뭐라든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이다.

[참고자료]

제 10차 한발레츠 정기총회



공동체 화폐 "두루"로 만드는 행복한마을 한발레츠 총회자료집

제10차 한발레츠 정기총회

■ 일시 : 2011년 2월 12일 (토) 오후 4시 00분

■ 장소 : 한발레츠 사랑방

공동체 화폐 “두루” 로 만드는 행복한 마을



지역공동체가 한발레츠

지역 품앗이 한발레츠 제10차 총회 자료집

차 례

- 총회순서 -----
- 한발레츠가 걸어온 길 -----
- 한발레츠 주요 현황 -----
- 제10차 총회 상정의안 및 자료
 - I. 2010년 종합감사보고 승인의 건 -----
 - II. 활동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
 - III. 활동 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 정관 -----
- 회원 동의서 -----

지역 품앗이 한발레츠 총회 순서

제 1 부

- 연우 신우 노래

제 2부

- 회원 소개
- 성원보고 및 개회 선언
- 경과 보고
- 한발레츠 활동사진 관람
- 상정의안 심의
- 함께 축하 하기 (시상식)
- 폐회 선언

제 3부

- 생산자 회원들과의 이야기 나누기
- 작은만찬
- 뒤풀이

한발레츠가 걸어온 길

날 짜	내 용
· 1999년	10월부터 회원모집 시작
· 2000년 2월	70 여명의 회원이 모여 중촌동의 ‘샘이 깊은 물’에서 창립총회
· 2000년 11월	지역통화(LETS)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참여 (미내사클럽, 불교환경교육원 주최)
· 2001년 5월	레츠 등록소를 대전의제 21 추진협의회로부터 독립하여 운영하기 시작
· 2001년 9월	“한발레츠· 나눔과 보살핌의 공동체 실험” 녹색평론 60호에 실림(박용남)
· 2002년 2월	1차 회원 총회
· 2002년 3월	대전광역시 민간단체 등록 대전의료생협 주사무소인 법동으로 등록소 이전
· 2002년 4월	대전민들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약칭 민들레의료생협) 창립 (한발레츠 회원 주도, 303명의 조합원 중 150여명이 한발레츠 회원)
· 2002년 8월	한발레츠 실험 3년 평가 워크샵/두루지폐 발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주는 ‘참여자치시민상’ 수상
· 2002년 12월	2차 회원 총회
· 2003년 2월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 총회에서 ‘지역품앗이 한발레츠가 우수사례’로 선정
· 2003년 3월	한발레츠 회원 주축 대안학교 준비모임 ‘두루학교’ 인터넷카페에서 활동 시작 “협동하는 삶, 현장에서 배운다”
· 2003년 10월	2003년 자활후견기관 중견활동가 양성을 위한 현장 연수팀 방문 (30여명) 등록소 실무자 일일 자원봉사체제로 전환
· 2003년 12월	“레츠· 인간의 얼굴을 한 돈의 세계” 한발레츠 소개(박용남 지도위원 옮김) 문화소의계층을 위한 이동영화관 사업 시작(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비지원)
· 2004년 2월	“풀무공동체를 통해 배우는 지역사회 전망찾기” 참여(홍성 홍동일대)
· 2004년 2월	3차 회원 총회
· 2004년 4월	대전꽃피는 학교 개교(12년제 대안학교, 한발레츠 회원 주도)
· 2004년 6월	대안사회 주민연대 공동소식지 “사람사이” 창간호 참여 (참가단체 등록)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 2004년 9월	한국교육방송 30년, 공사창립 4주년 특집 행복이란 무엇인가? 제 4부 “인간의 얼굴을 한 돈의 세계” (한발레츠 사례를 중심으로)
· 2005년 3월	KBS 제 3지대 “ 법동 사람들의 행복 만들기” 방영
· 2005년 5월	일본 “지역통화세미나 in EXPO 2005” 초청받아 사례발표
· 2005년 10월	서울 청사에서 여성 가족부와 “한국공동체화폐연대” 간담회
· 2005년 11월	5주년 기념 “세계공동체화폐 학술 심포지엄” 개최 한국공동체화폐 연대(가칭) 발족
· 2006년 2월	EBS 하나뿐인 지구 “환경을 살리는 위대한 돈 경쟁을 넘어 나눔으로” 방영
· 2006년 10월	생명평화대전과 한발레츠 만찬 행사
· 2007년 2월	6차 회원 총회
· 2007년 4월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 2007년 7월	한발레츠 장소 마련 이전
· 2008년 2월	7차 회원 총회
· 2009년 2월	8차 회원 총회
· 2009년 2월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두루잔치” (2009/2~2010/2)
· 2009년 4월	한발레츠 10주년 기념 행사와 자료집 발행, 심포지엄 개최
· 2010년 1월	9차 회원 총회

한밭레츠 현황

1, 회원 현황

<표1, 회원 현황>

구분	전체 회원	신규 가입회원	탈퇴 회원
계정 수 (가구)	457	67	44

2010년 신입회원 100가구 늘리기 계획을 진행 하였으나 2009년 신입회원 65가구와 별 차이가 없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신규 회원가구수가 늘어난 반면 탈퇴 회원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 회원수는 2009년에 비해 21가구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2, 탈퇴 사유별>

탈퇴 사유	탈퇴 의사	회원 정리
계정 수 (가구)	24	20

2009년에 이어 2010년도 장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품앗이 거래, 회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들을, 회원 활동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정리를 하였으며, 이사, 회원활동 참여 부진 등으로 탈퇴의사를 밝혀 주신 분들을 탈퇴 의사가 있어 탈퇴 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표3, 가입 방식별>

방식	레츠 취지가 좋아서	방송, 매체 기사보고	회원 소개	기타
가입 회원 수	7	5	36	19

2010년도 회원 소개로 가입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기타 로 분류 되어 있는 경우 중에는 가입동기를 작성하지 않으신 회원이 15가구, 농산물 거래 2가구 등 이다.

2, 위원회 현황

구분	회의	내용	비고
운영위원회	매월 1회	운영전반에 관한, 안건, 회계심의 의결	
소식지 위원회	편집 회의시	소식지 편집, 발송 작업	2010년 4회 발행
행사 위원회	격월, 행사 준비시 수시	만찬기획, 계절활동 준비, 뒷정리	만찬, 품앗이학교, 계절활동, 연대행사 등
협력 두루지기	두루지기와 필요시	등록소 업무 지원	

1 . 2010년도 종합감사 보고 승인의 건

■ 의결주문 : 2010년도 종합감사 보고서를 승인한다.

2010년도 종합감사 보고서

1) 감사 개요

가. 일시장소 : 2010년1월 26일(화) 오후 4시 한발레츠 사무실

나. 감사범위 : 사업부문과 회계전반(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감사근거 : 한발레츠 정관 제 5장 21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업과 회계에 관한 감사 규칙과 절차에 따라

2) 감사 소견

가. 활동부분

우선 실무자들의 따뜻한 배려와 식지 않는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레츠가 만들어질 당시와는 생활환경도 많이 바뀌고 문화도 바뀌었지만 레츠에서는 항상 그 중심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에서는 내외활동의 중심에 사무실의 존재가 컸던 것 같습니다. 매주 발송하는 소식지나 제안에 나온 모임의 활성화, 지역농산물 거래를 주도했던 맛있는 보따리 준비, 그리고 품앗이 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활동까지.

품앗이 만찬의 경우 규모는 작지만 아주 알찬 모습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품앗이 학교의 경우 조금씩 장기적인 모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품앗이 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져서 서로의 능력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점점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소모임 활동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들간의 자생적인 모임은 만들어지고 사라지기를 반복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원칙과 방법을 준비하여 회원들이 쉽게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매년 추진되는 정기적인 활동이 안정되어 가는 모습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의 지속성이 향후 레츠의 지속성과 많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발굴해내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회계부분

2010년에도 우리 한발레츠는 투명하고 알뜰하게 한 해 살림을 해왔습니다. 이는 충분한 보상과 급여를 통한 계약관계의 임직원 관계가 아닌, 지역화폐운동의 비전을 갖춘 운영위원과 활동가들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감사회는 운영위원과 활동가들을 비롯한 회원들의 노고에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전체적으로 연초에 계획한 예산에 대비하여 수입과 지출부문에 걸쳐 고른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현금수지에서는 비록 규모는 소박하나마 전년에 이어 안정적인 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두루수지에서는 아직까지 두루수입이 두루지출에 비해 부족하므로 두루수입구조를 안정적으로 갖춰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지난 감사에서 요구되었던 대차대조표가 제출되어, 수입과 지출을 통한 수지결산자료 외에도 재정상황을 알 수 있는 대차대조표를 작성해나가는 일은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해 참으로 잘 한 일입니다. 회원들이 모은 출자금과 기금을 통해 현재의 등록소 공간과 활동공간을 만들어왔음을 대차대조표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차대조표 상의 미지급금은 주로 생산자회원들이 판매한 물품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인데 이는 앞으로 생산자회원이 좀 더 빠르게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반환주기를 더 짧게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매대금의 결제와 반환관리를 매월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늘 어려운 살림형편에서도 언제나 튼튼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온 운영위원, 활동가, 회원 모두에게 따뜻한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에도 지역화폐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의 다른 품앗이운동 단체 및 사회적경제 운동을 해나가는 친구들과 협력하여 공동체화폐운동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2월 10일

감사 : 활동감사 : 김규용 (직인 생략)
회계감사 : 조병민 (직인 생략)

II . 2010년도 활동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 의결주문 : 2010년도 활동보고 및 결산(안)을 승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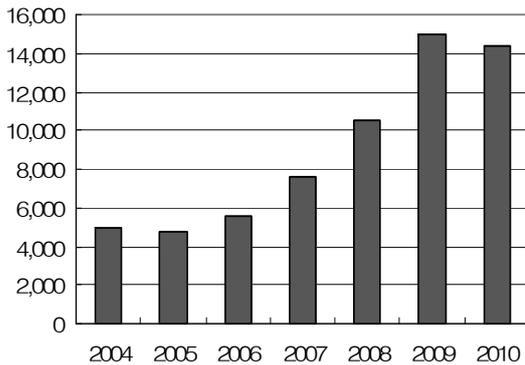
1. 품앗이 거래

1) 2010년 회원 간 품앗이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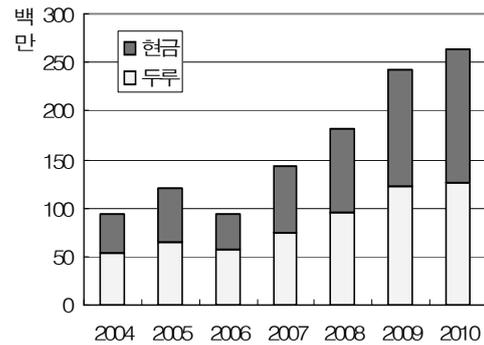
<표1. 연간 거래현황>

년도	거래건수	두루 거래액 (A)	현금 거래액 (B)	거래총액 (A+B)	두루비율(%) A/(A+B)*100	전년대비 증가율(%)
2010	14,342	126,643,180	137,954,970	264,598,150	47.9	-4.3
2009	14,983	122,835,290	118,912,850	241,748,140	50.8	33.4
2008	10,569	96,016,220	85,137,010	181,153,230	53.0	39.9
2007	7,557	73,737,090	68,999,750	142,736,840	51.7	36.9
2006	5,520	56,637,340	36,371,350	93,008,690	60.9	16.3
2005	4,745	65,160,426	56,115,250	121,275,676	53.7	-3.5
2004	4,919	53,211,295	41,045,495	94,256,790	56.5	84.0
2003	2,674	37,516,285	36,955,940	74,472,225	50.4	77.9
2002	1,503	28,403,130	20,493,450	48,896,580	58.1	172
2001	553	8,813,300	8,677,500	17,490,800	50.4	92.7
2000	287	4,866,000	5,427,900	10,293,900	47.3	

연도별 거래건수



연도별 거래액



2010년 거래건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1만4천여 건이고 거래액도 전년도와 비슷하여 두루거래액은 약 1억2천6백만두루, 현금거래액은 약 1억3천8백만원으로 현금거래액이 두루보다 약간 더 많았다. 2009년에 시작된 사회적일자리사업단 ‘두루잔치’가 2010년 2월까지만 지속되어 거래량이 줄었으나 새롭게 시도된 ‘행복한 보따리’

가 그 간격을 일부 메워주었다.

농산물은 850건 증가했고 의료와 음식(두루잔치 포함)은 각각 600여건과 1200여건이 감소했으며 생활용품, 품, 후원/감사 등의 품목들은 약간씩 거래가 증가하였다. 올해 초 호숫가품앗이사업단이 가입하면서 봄나물, 쌈채, 장아찌류 등의 거래가 늘어났고, 방울토마토, 벌꿀, 멸치액젓 등 새로운 품목의 거래도 발생했으며 회원들이 텃밭에서 기른 작물을 거래하기도 하여 농산물 거래가 증가하였다. 의료 거래가 감소한 것은 민들레의료생협의 직원과 이사진 가족 진료에 대한 정책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2a. 회원거래참여현황1>

년도	총가구수	1회 이상 거래가구	두루 벌고 쓴 가구	두루 벌기만한 가구	두루 쓰기만한 가구
2010	457	342	220	34	88
2009	435	338	208	28	102
2008	586	324	188	30	106
2007	545	295	147	14	134

<표2b. 회원거래참여현황2>

거래건수	회원 가구(%)
1-5건	87
6-20건	96
21-50건	50
51-100건	48
101-200건	36
200-900건	20
1000건 이상	5
계	342

2010년 전체회원은 457가구(487명)이고 1회 이상 거래한 가구는 342가구로 총 가구 중 75%에 해당한다. 2010년 한 해 동안 거래에 참여한 가구를 거래건수 별로 세분한 결과, 20건 이내의 거래 가구 수가 183가구인데 이는 전체회원 가구 중 40%, 전체 거래가구 중 54%에 해당한다. 1년간 51건 이상 거래하여 레츠를 활

발하게 이용한 가구는 전체회원 가구 중 24%, 전체 거래가구 중 32%로 2009년 27%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1000건 이상 거래한 회원은 한발레츠, 의료생협, 도토리(달걀 등 농산물), 새벽별(손두부 등 농산물), 두레(약국)로 정기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회원 혹은 가맹점이다.

<표3. 월별 거래현황>

	거래건수	두루 거래액	현금 거래액	거래 참여가구수
1월	1,108	7,597,380	8,870,100	214
2월	1,122	8,897,500	7,919,900	221
3월	1,306	12,969,850	15,045,800	211
4월	1,222	10,523,900	8,354,800	213
5월	1,165	8,398,900	9,387,500	221
6월	1,308	9,774,700	12,203,350	216
7월	1,476	12,063,050	16,215,020	212
8월	804	7,541,650	7,050,050	213
9월	956	7,739,000	11,643,600	211
10월	1,299	12,310,150	14,401,350	223
11월	1,458	12,714,750	16,705,150	231
12월	1,118	16,112,350	10,158,350	228
계	14,342	126,643,180	137,954,970	342*

* 2010년 한 해 동안 거래에 참여한 가구 수로 행의 합계와는 다름

매월 거래건수는 800-1500여건(평균 1195건)으로 8월, 9월이 적은 편이고, 매월 거래참여 가구 수는 210-230가구(평균 237)로 균일하고 작년(평균 206가구)보다 많아 예년보다 더 많은 회원들이 매월 거래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2a>에 보듯이 두루를 쓰기만한 가구는 줄고 쓰기도하고 벌기도 한 가구는 늘고 있다.

<표4. 2010년 월별/분류별 거래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류별	백분율 (%)
농산물	312	358	430	330	281	461	584	174	291	342	467	228	4258	29.7
가맹점	176	179	206	230	184	185	200	146	164	184	195	186	2235	15.6
의료	130	113	127	142	111	98	126	104	115	134	119	131	1450	10.1
재활용	96	87	151	107	173	110	100	55	69	104	205	89	1346	9.4
음식	84	35	39	32	49	108	78	31	54	82	67	34	693	4.8
생활용품	41	14	38	43	26	28	55	38	27	85	42	37	474	3.3
품	25	24	14	24	45	49	59	29	28	36	58	18	409	2.9
공정무역	17	16	16	22	29	37	28	11	27	18	21	24	266	1.9
교육/행사	17	20	14	19	13	14	13	7	7	16	18	8	166	1.2
대여	3	15	25	10	10	17	17	10	15	5	6	16	149	1.0
자원활동	91	121	95	80	111	58	59	80	38	111	85	196	1125	7.8
후원/감사	6	25	32	69	20	28	48	13	17	69	61	31	419	2.9
월회비	93	97	100	98	94	95	92	90	86	93	93	92	1123	7.8
급여	17	18	19	16	19	20	17	16	18	20	21	28	229	1.6
소계	1108	1122	1306	1222	1165	1308	1476	804	956	1299	1458	1118	14342	
총거래대비 (%)	7.7	7.8	9.1	8.5	8.1	9.1	10.3	5.6	6.7	9.1	10.2	7.8		

- 농산물: 달걀, 곡류, 채소, 과일, 고춧가루 등 농산물 및 두부, 벌꿀, 과일즙, 농축액, 기름, 장류, 효소, 김, 장아찌류, 홍삼가공품, 유자차, 멸치액젓 등 농산물가공품
- 가맹점: 두레약국, 매일유업, 하늘북, 커피숍, 미장원, 카센타 등
- 의료: 민들레 의료생협, 다니엘치과의 병원진료
- 재활용: 재활용품 거래
- 공정무역: 마스코바도 설탕, 팔레스타인 올리브유, 원두커피
- 음식: 떡, 빵, 과자, 연잎밥, 어묵, 돈까스, 밀반찬, 김치류, 전통주 등 회원이 만든 음식
- 교육/행사: 품앗이학교, 동동마당극단, 체험행사 참가비 등
- 생활용품: 양말, 비누, 화장품, 친환경제품, 콘서트티켓, 식사권, 붓글씨작품, 회원이 만든 수공예품, 동식물분양 등
- 품: 개인 간 서비스 제공
- 대여: 책, 차량, 식기류, 바이올린, 품앗이방, 전자기기, 가방 등 대여
- 후원/감사: 회원 간 혹은 단체에 후원, 감사한 맘, 운영위불참벌금, 포인트사례, 행사참여선물, 부조금 등
- 자원활동: 한발레츠와 민들레의료생협의 자원활동
- 월회비: 회비 중 두루 부분
- 급여: 한발레츠와 민들레의료생협의 급여 중 두루 부분

전체거래건수 중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 7% 증가하여 29.7%이다. 가맹점은 전년도와 비슷한 15.6%이고, 의료거래가 차지하는 거래건수 비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2010년에는 더 많이 감소하여 10.1%만을 차지하였다. 거래건수로는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거래액은 여전히 의료거래가 거래총액의 36%, 두루총액의 23%로 가장 비중이 크고 의료거래의 현금거래액은 2009년에 비해 2천3백만원 정도가 늘어 치과나 한의원 거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두루거래액 중 두 번째로 금액이 큰 거래는 자원활동으로 두루총액의 18.5%이다.

표5의 '평균 두루비율'을 살펴보면, 재활용, 품, 대여는 대부분의 거래가 전액 두루로 거래됨을 알 수 있다. 의료도 거래에서 평균 두루비율이 84.6%로 높은 편이지만 작년(93%)보다는 줄었다. 농산물과 공정무역 제품은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품목이지만 작년보다는 약간씩 증가하였다. 농산물에서는 개인적으로 텃밭에서 기른 작물을 두루로 거래한 경우가 많아 평균두루비율이 약간 증가하였다. 가맹점, 음식, 생활용품 부분은 평균 두루비율이 30-50% 정도로 작년과 비슷하다. 2010년 한 해 동안 총 거래의 평균 두루비율은 60.5%로 2009년 51.6%보다 많이 증가되어 두루를 사용한 거래가 더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현금부분이 기록되지 않는 월회비와 급여/퇴직금 거래는 이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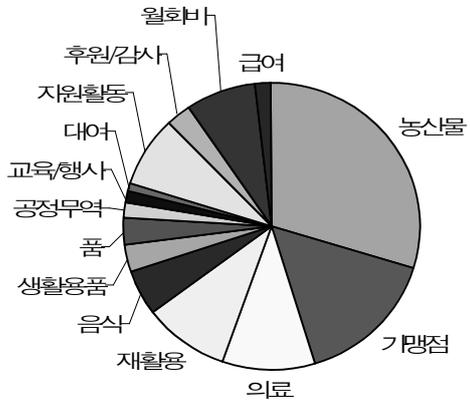
<표5. 분류별 거래현황>

	거래건수	두루	현금	거래총액	평균두루비율* (%)	2009년 거래건수
농산물	4,258	10,378,500	37,959,900	48,338,400	23.1	3,408
가맹점	2,235	7,775,150	18,306,320	26,081,470	48.6	2,275
의료	1,450	29,631,580	66,069,950	95,701,530	84.6	2,038
재활용	1,346	8,562,900	117,000	8,679,900	99.6	1,454
음식	693	2,465,000	3,832,000	6,297,000	34.0	1,907
생활용품	474	4,033,000	5,609,600	9,642,600	34.7	285
품	409	5,207,000	1,515,000	6,722,000	96.7	277
공정무역	266	763,000	3,325,200	4,088,200	19.0	228
교육/행사	166	2,475,000	1,000,000	3,475,000	85.9	220
대여	149	1,480,500	220,000	1,700,500	98.4	142
자원활동	1,125	23,459,000	0	23,459,000	100.0	1,177
후원/감사	419	14,926,550	0	14,926,550	100.0	226
월회비	1,123	2,366,000	0	2,366,000		1,172
급여	229	13,120,000	0	13,120,000		174
계	14,342	126,643,180	137,954,970	264,598,150	60.5**	14,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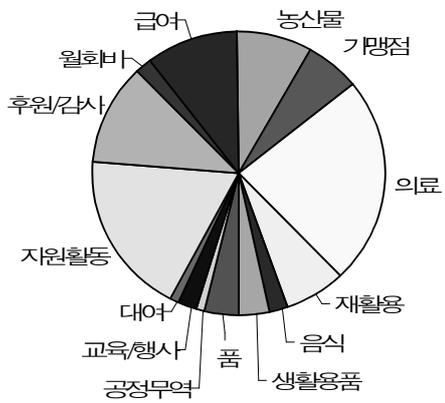
* 평균 두루비율은 매 거래의 두루비율을 계산한 다음 이를 평균한 값으로, 총 두루거래액을 총거래액으로 나눈 표1의 두루비율과는 다름.

** 2010년 전체거래 중 월회비와 급여/퇴직금을 제외한 거래의 평균두루비율

분류별 거래간수



분류별 두루총액



2. 2010년 한발레츠 회원 활동

2010년의 한발레츠는 조용하면서 바빴던 한 해였다. 회원들의 활동 참여가 저조하여 행사를 마련하고 진행하는데 있어 조용하고 한가했던 느낌을 많이 받았으며, 반면 사무실은 많이 바빴다. 거의 매일 있는 정기적인 일정과 함께, 하반기부터 시작한 “맛있는 보따리” 진행, 많은 곳에서 의뢰가 끊이지 않았던 품앗이놀이학교로 실무자들은 주말을 쉬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홈페이지를 통한 거래는 활발하여 다양하고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져서 홈페이지를 접속하지 못하거나 늦게 접속하는 회원은 필요한 물품이 나와도 거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였지만,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회원이 많아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보여 진다. 오프라인 행사 참여가 저조한 반면 홈페이지 활동은 활성화 되었다는 것이 젊은 세대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

4월부터 매주 발송한 “좋은 이웃 뉴스레터”는 한주간의 활동과 활동 계획 등을 미리 안내 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으며, 가볍게 지나치기 쉬운 회원 활동 등을 정리하는 효과도 있었고, 뉴스레터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을 더 자주 하게 된다는 평가도 있어 홍보 활동 중 뿌듯한 성과였다.

권술롱 관장님의 33인 두루 결사대 제안 내용을 “행복한 실천단”으로 수정하여 좋은 여행지를 회원들과 함께 하는 <행복한 여행>, 좋은 강좌나 좋은 공연을 함께 듣는 <행복한 강좌> 등으로 진행하여 먼 곳에 사는 회원 덕을 방문하기도 하고 함께 산길 걷기도 하면서 좋은 여행을 했으며, 함께 듣고 싶은 강좌를 추천 해 주시는 회원들 덕분에 좋은 강좌도 할 수 있었으며, 콘서트 티켓을 두루 포함하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신 회원 덕분에 많은 회원들이 행복한 공연도 관람 할 수 있었던 한해였다

안전한 지역 농산물 소비로 한발레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자 진행한 맛있는 보따리”는 2주에 한번 두부, 달걀, 간식, 밀반찬, 채소 등을 배달해 드리는 먹거리 묶음 배달 활동으로, 계획된 농산물 생산이 없어 채소를 공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쿠키를 굽거나 밀반찬을 만들어야 하는 일과 함께 배달을 주로 실무자가 하다 보니 많은 시간을 맛있는 보따리 진행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실무자의 부담이 컸지만, 맛있는 보따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많은 거래를 성사시키는 성과를 내었다.

그동안 품앗이 사례를 듣는 것으로 부족한 단체, 개인 등 품앗이를 시작하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체험을 통해 배우고 느낄 수 있는 품앗이놀이학교를 한발레츠 홍보팀 “두루소리”에서 1박2일 동안 진행하여 좋은 반응이 있었으며, 2009년 참여하였던 분들이 지역에서 진행하고자 놀이학교 교육 의뢰를 하셔서 5번의 품앗이 놀이학교를 진행하였고, 교육에 참여하였던 지역의 네 곳에서는 품앗이를 시작하고 있어 품앗이놀이학교의 큰 성과로 보여 진다. 또한 “두루소리”를 함께 하고 있는 회원이 사례발표를 하고, 설명회 등도 진행하여 홍보팀의 활기찬 활동을 보여 주었다.

1) 품앗이 만찬

일시	장소	내용
1/30 (토)	한발레츠 사랑방	제 9차 정기총회
4/18 (일)	추동 동명초등학교	봄 꽃맛이 품앗이만찬
4/28 (수)	노은동 사람연대 사무실	노은동 동네 작은 만찬
6/16 (수)	전민동 김인숙(감꼭지)회원택	전민동, 관평동 동네 작은 만찬
7/16 (금)	한발레츠 사랑방	신입회원을 위한 작은 만찬
8/11 (수)	한발레츠 사랑방	운영위원 작은 품앗이만찬
10/20 (수)	한발레츠 사랑방	법동 동네 작은 만찬
10/22 (금)	한발레츠 사랑방	어린이 마당극단 “동동” 과 왜가리 파전이 있는 작은 만찬
10/28 (목)	전북 대둔산	주부 나들이 작은 만찬
11/20 (토)	대덕구 문예회관	회원 장기자랑, 어린이 마당극단 “동동” 공연, 권슬룡 관장님 칠순 축하 등의 송년만찬

2) 품앗이 학교

품앗이 학교명	일시	장소	비고
다례	매주 목, 금	한발레츠 품앗이방	5년째 진행
방학특강 다례	매주 화, 수 8회	한발레츠 품앗이방	
어린이 마당극단 “동동”	격주 금	한발레츠 품앗이방	4년째 진행
재무관련 강좌	1/20	한발레츠 품앗이방	
전통음식	9월부터 매주 월	한발레츠 주방과 두루방	
바느질	매주 수	한발레츠 두루방	
엄마랑 동화읽기	10월부터 격주 금	한발레츠 두루방	

3) 계절활동

구분	계절체험	장소	내용
봄 (2/28)	된장 담그기, 나물 뜯기	대둔산 새벽별(한재식)회원택	2009년 만들어 두었던 메주로 된장 담그기와 함께 봄나물 뜯기를 함께 함

봄 (4/19)	된장 비비기	대둔산 새벽별(한재식)회원택	된장을 비벼 향아리에 담금
여름 (6/13)	매실 따기	금산	금산 농민회와 함께 함
가을 (10/10)	밤줍기	공주 정안	밤 아저씨 회원택 농장으로 가을 나들이 겸 밤 줍기 진행
가을 (11/28)	된장 푸기, 메주 만들기	대둔산 새벽별(한재식)회원택	봄에 담가 두었던 된장을 나누어 푸고, 메주 만들기를 함
겨울 (12/4~5)	공동김장	한발레츠 사랑방	김성태 회원의 절인배추를 구입하여 레츠 사랑방에서 진행

4) 행복한 실천

실천명	일시	내용
행복한 여행	3/13~14	완도(제비꽃 회원)여행과 회원 만나기
	7/18	공주 공산성 산성길 걷기
	8/28~29	영광 태청산 음악회
행복한 강좌 / 공연	3/29	캐서린 한의 비폭력 대화
	6/24	도보 여행가 황안나 님의 “자신을 감동 시켜라”
	9/4	양희은 콘서트
	11/6	이은미 콘서트

5) 소모임 활동

모임명	내용
바느질 모임	2008년에 이어 지속되어진 모임으로 함께 만들고 싶은 작품이 있을 경우 함께 함
홍보팀 “두루 소리”	한발레츠를 방문하는 단체나 개인을 안내, 설명하고, 외부 사례발표, 신입회원 교육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부모임을 지속하면서 사례발표나 신입회원 교육을 하였으며, 품앗이놀이학교를 진행
두루 밥상	전통 조리서인 “주식시의” 의 음식 만들기과 연구를 하면서 여성컨텐츠 개발사업 발표회에 음식 발표도 진행
다례품앗이교실	5년을 해 오는 품앗이 교실을 통해 강화 된 역량으로 2010년에는 대덕

“차에원”	구 문화원의 대모름 행사와 동춘당 문화제, 신탄진 벚꽃제 행사에 참여 전통차 시음행사 진행함
-------	--

6) 레츠 시스템 교육과 홍보

구분	횟수	내용
“좋은이웃” 소식지	4회	2010년 봄, 여름, 가을, 겨울호
좋은이웃 뉴스레터	37회	2010년 4월부터 매주 메일을 통해 발송
언론보도	8회	1/22 : 씨알의 소리 (김성훈 운영위원 원고기고) 2/11 : 청소년 문예지 “미루” 3/24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김성훈 운영위원 원고기고) 4/5 : 무한지대 큐 방영 5/12 : KBS 1 라디오 “충청권 네트워크” 전화 인터뷰 7/10 : 도시주택공사 “시민과 도시” (김성훈 운영위원 원고기고) 10/6 : 월간 “기독교” 10/11 : 월간 “건축도시공간”
한발레츠 사례 발표/ 초청강연/ 설명회	23회	3/4 :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 3/9 : 인천의제21추진협의회 3/12 : (사)제주대안연구 공동체 3/26 : 서울중구가정지원센터 4/8 : 서울감례신학대학교 5/13 : 서구 행복네트워크 5/14 : 대덕문화원 5/18 : 서구 행복네트워크 서구사랑 봉사단 5/26 : 풀뿌리사람들 젊은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6/18 : 여성민우회생협 / 서울가정지원센터 7/13 :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 귀농학교 8/24 : 관악구청 심포지엄 9/8 : 경주여성노동자회 10/3 : 관악사회복지관 10/7 : 풀뿌리사람들 10/8 : 청주 교육문화공동체 가로수마을 10/21 : 청주 교육문화공동체 10/23 : 함께걸음의료생협 10/26 :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40주년 준비 워크숍 12/6 : LH 마을형 사회적 기업 11/15 : 부산 반송복지관

		12/10 : 아산 YMCA 12/28 : 관저품앗이
한발레츠 방문	42회 136명	1/19 : 서울시복지재단(1명) 2/2 : 수원학생 (1명) 2/17 : 청소년 문예지 미루(3명) 3/2 : 마곡사 스님 외(10명) 3/10 : 충남대 교수(1명) 3/19 : 일촌공동체(6명) 4/2 : 무한지대 큐 촬영(1명) 4/23 : 충남대 학생(2명) 5/14 : 서울시 복지재단(2명) 5/15 : 고려대 학생(2명) 5/17 : 꿈꾸는아이들의 학교(10명) 6/9 : 서울대학원생(1명) 6/11 : 안양대 교수(1명) 6/21 : 과천 자원봉사센터(2명) 7/26 : 사업가(1명) 7/28 : 일촌공동체(3명) 8/10 : 동경 토요대학생(9명) 8/12 : 구미시(1명) 9/9 : 대전신학대학생(3명) 9/16 : 서울시 주택정책과 외 강남, 방화복지관(10명) 9/29 : 풀뿌리사람들 취재(1명) 9/30 : 수원자원봉사센터(3명) 10/6 : 월간 기독교 취재(1명) 10/11 : 건축도시공간연구소(1명) 10/20 : 토지주택연구원(2명) 10/25 : 제천 꽃피는학교 (14명) 10/29 : 일촌공동체(12명) 11/1 : 고려대 학생(2명) 11/5 : 건국대 학생(7명) 11/10 : 토지주택연구원(3명) 11/11 : 관악사회복지관(5명) 11/17 : 중앙대 학생(2명) 11/20 : 성결대 학생(1명) 11/24 : 고려대 학생(4명), 한남대 학생(2명) 11/25 : 평화재단(1명) 12/2 : 일본 히로다야스유키 외 (3명) 12/8 : 희망제작소(2명) 1/25 : 인천의제21추진협의회 품앗이활동가 견학 5/29 : 파주 한 살림 조합원 견학

		8/27 : 서울 녹색연합 활동가 견학 9/3 : 서울 성동 주민자치회 견학
신입회원 만남의 날		수시로
지역화폐 교육 “품앗이놀이학교”	5회	4/24~25 : 지리산 귀농학교 2회 품앗이놀이학교 8/27~28 : 함양 3회 품앗이놀이학교 10/2~3 : 4회 안성 품앗이놀이학교 10/25 : 꽃피는학교 학생 5회 품앗이놀이학교 12/1 : 서울가정지원센터 6회 품앗이놀이학교

일정과 경과

- 1/5 : 화요장터 (매주 화요일)
1/7 : 법륜스님 영상강좌 (매주 목요일)
1/8 : 다레품앗이 (매주 금요일)
1/18 : 홍보팀 두루소리 (매주 화요일)
1/19 : 서울시복지재단 방문(1명) / 방학 다레품앗이 (매주 화, 수 8회차)
1/20 : 재무관련 품앗이학교
1/21 : 운영위원회겸 총회준비위원회
1/25 : 바느질 소모임
1/30 : 제9차 정기총회
2/1 : 두루지기 간담회
2/2 : 수원에서 학생방문 (1명)
2/16 : 행사위원회 비누만들기
2/17 : 소식지편집위원회의/ 홍보팀 두루소리 / 청소년 문예지 “미루”에서 방문 (3명)
2/19 : 다레품앗이 (매주 금요일)
2/23 : 방학특강 다레품앗이, 두루소리 모임
2/24 : 방학특강 다레품앗이, 화요장터 (매주 화요일)
2/25 : 노동부사회적일자리 “두루잔치” 사업 마감
2/27 : 차예원 문화원 대보름 행사 진행
2/28 : 된장 담그기, 나물캐기 계절활동
3/2 : 두루소리 모임
3/4 :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 사례발표
매주 월 : 바느질 소모임
매주 화 : 두루소리 2기 공부모임/ 화요장터
매주 금 : 다레 품앗이교실

3/2 : 마곡사 원예스님외 방문(10명)
 3/10 : 충남대 교수방문(1명)
 3/11 : 행사위원회
 3/13~14 : 행복한 여행 (완도 -제비꽃 회원댁 근처)
 3/16 : 두루지기 월례회의
 3/19 : 일촌공동체 방문(6명)
 3/24 : 행사위원회
 3/26 : 서울중구가정지원센터 사례발표
 3/29 : 행복한 강좌 “ 캐서린 한 의 비폭력 대화”
 4/2 : 무한지대 큐 촬영차 방문(1명)- 4월 5일 방영
 4/3 : 어린이 마당극단 동동 품앗이교실
 4/8 : 서울 감례신학대학교 사례발표
 4/10~11 : 신탄진 벚꽃제 차예원 참여
 4/13 : 두루지기 4월 회의
 매주 금 : 다례 품앗이 처음반
 매월 2, 4째주 금요일 : 어린이 마당극단 “ 동동”
 4/18 : 추동 품앗이 만찬
 4/19 : 계절활동 된장비비기
 4/21 : 두루소리 1기 회의 / 의료생협연대 운동회 준비회의
 4/23 : 충남대학생 방문 (2명)
 4/24~25 : 지리산 귀농학교 2차 품앗이놀이학교 진행
 4/27 : 의료생협연대 운동회 2차 준비회의
 4/28 : 노은동 동네 작은품앗이만찬
 5/5 : 레츠와 의료생협이 함께하는 가족운동회
 5/12 : kbs 1라디오 “충청권 네트워크” 전화 인터뷰
 매월 2, 4째주 금요일 : 어린이 마당극단 “동동”
 5/14 : 서울시 복지재단 방문(2명) / 대청호 로컬푸드 회의 참석
 5/15 : 조치원고대학생 품앗이 체험 방문겸 농촌일손돕기(2명)
 5/17 :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방문 (10여명)
 5/20 : 소식지 편집위원회
 6/9 : 서울대학원생 방문(1명)
 매주 화 : 화요장터/ 격주 맛있는 보따리
 6/11 : 안양대 교수 방문(1명)
 6/13 : 매실따기 계절활동
 6/16 : 전민동, 관평동 동네 작은만찬
 6/17 : 여성민우회생협 사례발표/ 서울가정지원센터 사례발표
 6/21 : 과천자원봉사센터 방문 (2명)

6/24 : 두 번째 행복한강좌 “자신을 감동시켜라” -도보 여행가 황안나
매주 수 : 대덕구 배달강좌 “역사 논술”
7/16 : 신입회원을 위한 작은 품앗이만찬
7/18 : 두 번째 행복한여행 “ 공주 공산성 산성길 걷기”
7/26 : 사업가 방문(1명)
7/28 : 일촌공동체 방문(3명)
8/10 : 동경 토요대학생 방문(9명)
8/11 : 운영위원 작은품앗이만찬
8/12 : 구미시 방문(1명)
8/24 : 관악구청 심포지엄 사례발표(이종현 운영위원)
8/25 : 두루소리 간담회
8/27~28 : 3회 품앗이놀이학교 진행 (함양, 지리산권역 실무자 26명)
8/28~29 : 3차 행복한여행 (영광 태청산 음악회)
8/30 : 두루밥상 (동춘당가에 내려오는 음식 연구: 금액 지원받음) - 매주 월요일
9/4 : 행복한 공연 (양희은 콘서트)
9/8 : 경주여성노동자회 사례발표
9/9 : 대전 신학대학생 방문(3명)
9/10 : 엄마와 아이 동화읽기 품앗이 준비모임
9/10~11 : 어린이마당극단 “동동” 캠프
9/15 : 협력두루지기 간담회
매주 월 : 두루밥상
매주 화 : 화요장터 /격주 맛있는 보따리
매주 수 : 대덕구 배달강좌 “역사 논술” / 바느질 모임
매주 목 : 다레 품앗이
매주 금 : 다레 품앗이 처음반
매월 2,4째주 금요일 : 어린이 마당극단 “동동” 품앗이교실
9/11~12 : 다레 품앗이팀 동춘당 문화제 행사 참여
9/15 : 두루지기 간담회
9/16 :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외 강남복지관 방화복지관 방문(10명)
9/29 : 풀뿌리사람들 취재방문(1명)
9/30 : 수원 자원봉사센터 방문(3명)
10/1 : 두루소리 간담회
10/2~3 : 4회 안성품앗이놀이학교 진행
10/6 : 월간 기독교 취재방문(1명)
10/8 : 청주 가로수마을 사례발표 / 동화읽기 품앗이 / 두루소리 간담회
10/10 : 밤줍기 계절활동
10/11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방문(1명)

10/13 : 정기 운영위원회
 10/20 : 법동품앗이 작은 만찬 / 토지주택연구원 방문(2명)
 10/21 : 청주 교육문화공동체 사례발표 (이종현 운영위원)
 10/22 : 어린이 마당극단 “동동”과 왜가리 파전이 있는 작은만찬/ 동화읽기 품앗이 교실
 10/25 : 제천 꽃피는학교 학생 5회 품앗이놀이학교 (14명)
 10/28 : 나들이 품앗이 작은만찬
 10/29 : 일촌공동체 방문 (12명)
 11/1 : 두루밥상 “여성컨텐츠 개발사업” 에 주식시의 음식전시/ 조치원고대학생 방문(2명)
 11/5 : 충주 건국대학생 방문 (7명)
 11/6 : 행복한 공연 “이은미 콘서트”
 11/7 : 한 살림 장터에 체험 장터 진행
 11/9 : 명상춤 품앗이교실 1
 11/10 : 명상춤 품앗이교실 2/ 토지주택연구원 조사 방문 (3명)
 11/11 : 관악사회복지관 방문(5명)
 11/15 : 부산 반송복지관 사례발표 (이종현 운영위원)
 11/17 : 행사위원회/ 두루밥상 모임/ 중앙대학생방문(2명)
 11/20 : 송년만찬 (성결대학생방문(1명))
 11/22 : 소식지위원회/ 행사위원회 간담회
 11/24 : 조치원고려대학생 방문(4명), 한남대 학생 방문(2명)
 11/25 : 지역거점네트워크 운영위, 평화재단 방문(1명)
 11/27 : 10차 총회준비위원회의
 11/28 : 된장푸기, 공동 메주만들기 계절활동
 12/1 : 서울 가정건강지원센터 6회 품앗이놀이학교 진행
 12/4~5 : 공동김장 진행
 12/8 : 희망제작소 방문 (2명)
 12/10 : 아산 YMCA 사례발표
 12/15 : 명상춤 품앗이교실

대차대조표
(2010. 12. 31 현재)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자산		부채 및 자본			
유동자산	현금	67,330원	부채	미지급금	7,672,500원
	예금	13,236,797원		생산자회비	992,840원
고정자산	건물보증금	10,000,000원	자본	발전기금	6,730,290원
	비품	820,858원		출자금	15,420,000원
	시설	12,150,290원		전기이월금	3,410,635원
		당기순이익		2,049,010원	
합계		36,275,275원	합계		36,275,275원

※ 내역

예적금현황

농협 지역품앗이한발레츠 7,136,902원
 농협 지역품앗이한발레츠 2,181,094원
 농협 권솔롱한발레츠 3,248,553원
 농협 김성훈 389,248원
 새마을금고 박현숙한발레츠 281,000원

 계 13,236,797원

건물보증금

대전시 대덕구 법1동 282-9번지 3층
 임차보증금 10,000,000원

비품 : 사무기기 보유

시설현황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14,150,290원
 감가상각 2,000,000원

 계 12,150,290원

미지급금 : 생산자물품 판매대금 미지급금

생산자회비 : 생산자모임 회비

발전기금

2007년 사무실 이전 시 모금한 후원금

출자금현황

전기출자금 17,420,000원
 출자금반환 2,000,000원

 계 15,420,000원

2010년 현금 수지결산(안)

(2010년 1월1일~12월31일)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관	항	목	세목	2010예산(현금)	2010결산(현금)	예산대비%	비고
	회비수입	회비수입	월회비	15,500,000	15,874,000	102.4	
	사업수입	회원활동	회원참가비	1,600,000	276,000	17.3	민천참가비
		물품판매대여	물품판매대여	5,500,000	5,705,000	103.7	공정무역,보따리,머거리 등
수입	후원수입	정기후원	정기후원	5,000,000	4,969,000	99.4	
		특별후원	회원후원	1,470,000	3,189,680	217.0	
			의료생협후원	2,400,000	2,400,000	100.0	매월20만원
	기타수입	잡수입	잡수입	3,500,000	5,157,000	192.8	사례발표,장소대여,자료집 등
			품앗이놀이학교		1,500,000		품앗이놀이학교참가비
수입총계				34,970,000	39,160,680	112.0	
		조직활동비	조직활동비	500,000	77,000	15.4	활동기조사
			행사준비비	500,000	358,170	71.6	
		교육활동비	교육활동비	100,000		-	
			소식지발행비	560,000	560,000	100.0	
	활동비	홍보활동비	소식지발송비	650,000	643,460	99.0	
			기타홍보비	2,000,000	1,042,300	52.1	품앗이놀이학교경비
		연대활동비	연대활동비	300,000		-	
지출		회의비	총회	400,000	208,400	52.1	
			운영위원회	250,000	52,000	20.8	
활동비합계				5,260,000	2,941,330	55.9	
		인건비	실무자급여	14,400,000	14,400,000	100.0	
			자원활동가 활동비				
		복리후생비	4대보험보조	1,350,000	1,353,600	100.3	
			복리후생	900,000	811,700	90.2	생수,식재료 등
			전화요금	400,000	482,710	120.7	
	관리비	통신비	우편요금	30,000	18,100	60.3	
			인터넷 기타	400,000	538,600	134.7	서버,도메인,프로그램개선 등
		전력비	전기요금	500,000	791,680	158.3	
			수도광열비	1,200,000	1,719,900	143.3	난방, 수도, LPG 등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	1,000,000	960,200	96.0	사례발표
		지급입차료	등록소운영비종합	4,800,000	4,800,000	100.0	월세 매월40만원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	200,000	296,270	148.1	책장,방충망 등
		수익물품구입	수익물품구입	3,000,000	4,265,230	142.2	공정무역,식재료,재활용품 등
		소모품비	소모품비	200,000	81,290	40.6	
		접대비	접대비	30,000	13,000	43.3	선물
		잡비	잡비	1,300,000	1,638,060	126.0	cms 수수료, 주민세, 컴퓨터수리 등
		감각상각비	감각상각		2,000,000		사실감각상각
관리비합계				29,710,000	34,170,340	115.0	
지출총계				34,970,000	37,111,670	106.1	
수지합계				-	2,049,010		
전기이월금					3,410,635		
당기이월금					5,459,645		

2010년 두루 수지결산(안)

(2010년 1월1일~12월31일)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관	항	목	세목	2010예산(두루)	2010결산(두루)	예산대비%	비고
	회비수입	회비수입	월회비	3,000,000	2,366,000	78.9	
	사업수입	회원활동	회원참가비	900,000	30,000	3.3	행복한여행참가비
		물품판매대여	물품판매대여	2,000,000	2,030,500	101.5	공정무역,보따리,책대여 등
수입	후원수입	정기후원	정기후원	2,000,000	2,245,000	112.3	
		특별후원	회원후원	6,000,000	7,509,750	125.2	
			의료생협후원				
	기타수입	집수입	집수입	100,000	162,000	162.0	장소사용료
		품앗이놀이학교					
수입총계				14,000,000	14,343,250	102.5	
		조직활동비	조직활동비	100,000	10,000	10.0	활동기식사
			행사준비비	1,500,000	1,400,000	93.3	민천참석선물,행사지원활동
		교육활동비	교육활동비	300,000		0.0	
			소식지발행비	700,000	820,000	117.1	소식지우주지원활동,원고료 등
	활동비	홍보활동비	소식지발송비	100,000		0.0	
			기타홍보비	800,000	3,185,000	398.1	가입선물,포인트두루지급,이름 디자이너 등
		연대활동비	연대활동비				
지출		회의비	총회	100,000	389,000	389.0	총회자료집,지원활동,선물 등
			운영위원회	1,000,000	1,805,000	180.5	운영위참석,회의록작성
활동비합계				4,600,000	7,609,000	165.4	
		인건비	실무자급여	4,800,000	4,800,000	100.0	
			지원활동가 활동비	4,000,000	4,180,000	104.5	협력두루지기,기타지원활동
		복리후생비	4대보험보조				
			복리후생	100,000	135,650	135.7	식재료,간식 등
			전화요금				
	관리비	통신비	우편요금				
			인터넷 기타				
		전력비	전기요금				
			수도광열비				
		아비교통비	아비교통비				
		지급인차료	등록소운영비종합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	300,000	944,000	314.7	컴퓨터,도서,소광백,보자기 등
		수익물품구입	수익물품구입		538,000		
		소모품비	소모품비	100,000	30,000	30.0	흙,이면지
		접대비	접대비		3,000		선물
		잡비	잡비	100,000	112,800	112.8	컴수리,탈투처리
관리비합계				9,400,000	10,743,450	114.3	
지출총계				14,000,000	18,352,450	131.1	
수지합계				-	-	4,009,200	
전기이월금				-	1,692,613	-	1,692,613
당기이월금				-	1,692,613	-	5,701,813

V. 2011년 활동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의결주문 : 2011년도 활동 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한다.

2011년 활동계획(안)

■ 슬로건

- 한 걸음 두 걸음 스스로 성장하는 레츠인이 되자 -

■ 사업의 목적

회원들이 행복해 하는 레츠를 만들자

■ 사업의 목표

- 회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화폐 활성화에 바탕이 되도록 한다.
- 다양한 회원활동을 통하여 모든 회원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구분	사업내용	세부계획	비고
생활 속 실천	건강한 소비활동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나 시민단체 1곳 이상 관계 맺기 - 냉장고속을 파악하여 소비 줄이기(냉장고 품목 적어서 붙여놓기) - 카드 사용 줄이기 (신용카드 개수 줄이기) - 필요한 물품 우선적으로 레츠를 통해 구하기 	년중
거래부분	생산소모임 지원	- 회원들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한 생산소모임을 꾸리고자 할때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한다.	년중
	화요장터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요장터에 나오는 물품은 미리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주문을 받고 홍보도 될 수 있게 한다. - 문자를 통한 농산물 홍보를 정기적으로 한다. - 계절활동을 통한 농민회원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직거래 장터의 도움이 되게 한다. 	년중
회원 활동	■ 품앗이 만찬	<p>한발레츠 사랑방 내부와 외부를 이용한 테마별 작은 만찬은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전체 회원이 함께 할 수 있는 만찬을 마련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풍가기 만찬 - 신입회원을 위한 만찬 - 동네별 만찬 - 어린이들을 위한 만찬과 장터 - 남자들을 위한 만찬 - 주부들을 위한 만찬 - 옷만 파는 만찬 - 밑반찬 마련하는 만찬 - 액세서리만 파는 만찬 - 11월 : 송년 품앗이 만찬 등 	년중
	■ 계절별 회원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 봄나물 뜯기 - 여름: 매실 따기 - 가을: 가을걷이 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 : 생산농가 근처 - 여름 : 금산 농민회와 함께 매실 따기 - 가을 : 사과 따기, 포도 따기 등 - 겨울 : 공동 김장, 공동 된장, 고추장 담그기 	년중

	<p>협과 일손 돕기 - 겨울 : 공동 활동</p>		
	<p>■ 위원회 활동 ● 운영위원회 ● 소식지 위원회 ● 행사 위원회 ● 협력 두루지기</p>	<p>- 운영위원회 : 매월 - 소식지 위원회 : 3개월에 한번 소식지 발행 - 행사위원회 : 만찬, 계절활동 기획, 준비, 뒷정리 - 두루지기 회의: 수시로 필요에 따라</p>	년중
	<p>회원 활동</p>	<p>▶ 행복한 실천 : 지역화폐 “두루” 사용을 생활화 하는 실천단으로... - 행복한 여행 : 좋은 여행지를 공지해 함께 하고자 하는 회원들과 함께 준비하여 진행한다. - 행복한 강좌 : 좋은 강좌가 있으면 공지하여 함께 하고자 하는 회원들과 함께 듣는다. - 행복한 공연 : 좋은 공연이 있으면 공지하여 함께 하고자 하는 회원들과 함께 한다. ▶ 도서관 두루BOOK :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진행 ▶ 두루 밥상 : 전통조리서 “주식시의” 의 음식 과 현대 음식과의 조화를 연구하고 만드는 모임을 진행 ▶ 두루두루 모여라 : 캠핑, 등산 등 주말을 이용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모이는 회원들과 함께 진행</p>	년중
교육과 홍보	<p>품앗이 학교</p>	<p>- 다양한 품앗이학교가 열릴 수 있도록 회원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의견에 따른 품앗이학교가 빨리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p>	년중
	<p>신입회원 만남의 날</p>	<p>- 신입회원을 위한 작은 만찬을 적극 활용하여 회원들이 레츠 활동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신입회원 교육은 수시로 진행한다.</p>	년중
	<p>소식지 발행</p>	<p>- 계간지로 연 4회 차 발행</p>	년4회
	<p>뉴스레터</p>	<p>- 메일을 통해 한발레츠의 활동 보고와 안내 등을 매주 발송한다.</p>	
	<p>품앗이 놀이학교</p>	<p>- 품앗이를 준비하거나 배우고자 하는 단체 나 개인의 의뢰가 있을 경우 홍보팀 “두루소리” 가 진행한다.</p>	상, 하반기
연대활동	<p>연대 활동</p>	<p>- 의료생협 조합원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진행한다. - 지역 내 연대가 필요한 활동은 함께 한다.</p>	년중
	<p>공동체 화폐 연대</p>	<p>- 품앗이 놀이학교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품앗이 단체를 포함해, 전국의 지역화폐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화폐 단체가 함께 “공동체 화폐 연대”을 진행한다.</p>	상반기

수지예산(안)

(2011년 1월1일~12월31일)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관	항	목	세목	현금(원)	두루(두루)	비고	
수입	회비수입	회비수입	월회비	17,000,000	2,500,000		
	사업수익	회원활동	회원참가비	300,000	350,000	만찬,계절활동,행복한실천 등	
		물품판매 대여	물품판매대여	6,000,000	2,500,000	공정무역,제조물품,책대여 등	
	후원수입	정기후원	정기후원	5,500,000	2,800,000		
		특별후원	회원후원	2,500,000	8,480,000		
			의료생협 후원	2,400,000		매월20만원	
	기타수입	기타수입	잡수입	5,500,000	200,000	사례발표, 장소대여 등	
		품앗이놀이학교	1,500,000		참가비		
		전기 이월금	5,459,645				
수입총계				46,159,645	16,830,000		
지출	활동비	조직활동비	조직활동비	300,000	100,000		
			행사준비비	400,000	1,500,000	만찬,품앗이놀이학교 등	
		교육활동비	교육활동비	100,000			
		홍보활동비	소식지발행비	560,000	850,000	좋은이웃 4회	
			소식지발송비	700,000			
			기타홍보비	4,000,000	800,000	살며느끼며책발행,놀이학교등	
		연대활동비	연대활동비	300,000		공동체화폐 연대 등	
	회의비	총회	250,000	400,000	총준위, 총회준비		
		운영위원회	250,000	2,000,000	운영위참석 등		
	활동비합계				6,860,000	5,650,000	
	관리비	인건비	실무자급여	15,840,000	5,280,000	실무자 2인	
			자원활동가		4,300,000		
		복지후생비	4대보험보조	1,400,000			
			복지후생	1,300,000	150,000	식재료 외	
		통신비	전화요금	500,000			
			우편요금	30,000			
			인터넷 기타	550,000		호스팅,도메인,문자	
		전력비	전기요금	800,000			
			수도광열비	2,000,000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	1,000,000		사례발표 교통비 외	
지급입차료		등록소운영비종합	4,800,000		월세 40만원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	300,000	1,000,000	도서,쇼핑백,보자기 구입외		
수익물품구입		수익물품구입	4,500,000	300,000	공정무역,물품제조원료 등		
소모품비	소모품비	100,000	50,000	문구용품 외			
접대비	접대비	30,000					
잡비	잡비	2,530,000	100,000	수수료 외			
예비비	예비비	3,619,645					
관리비합계				39,299,645	11,180,000		
지출총계				46,159,645	16,830,000		
수지합계				-	-		

한발레츠 정관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모임의 명칭은 『지역품앗이 한발레츠』라 하고, 약칭은 『한발레츠』라 한다. 여기서 레츠라 함은 지역교환거래체계(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의 영문 약자이다.

제 2조 (목적) 이 모임은 대전지역에 나눔과 보살핌의 경제원리인 레츠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립적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사회만들기와, 인간의 선의를 일깨우는 운동에 앞장선다.

제 3조(소재) 이 모임의 등록소는 대전시내에 둔다.

제 4조(사업) ① 이 모임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가. 도시에서의 공동체적인 생활양식의 창출

나. 생산유통·소비재활용의 과정을 지역내에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 구축

다. 실업자의 및 주부, 노인 등의 일자리 창출과 유희노동력을 개발·활용하기 위한 사업

라. 레츠(LETS)운동의 확산을 위한 사업

마.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운동에 동참하는 사업

바. 한발레츠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한 기타사업

② 19조 4항에 의거, 각호에 달하는 사업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 5조 (자격) ① 이 모임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개인과 단체, 작은 품앗이 단체로 한다. 회원가입 절차는 내규인 ‘회원 동의서’로 정한다.

② 가입이 가능한 지역은 대전과 인근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 한하되, 지역 특산 농축산물의 경우 다른 지역이라 할지라도 소정의 절차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제 6조 (종류) ①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정회원 : 이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회원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나, 단체회원 : 이 모임의 목적에 찬성하고 회원가입절차를 마친 단체

다, 이웃회원 : 거래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는 없으나, 레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개인

라, 특별회원 : 제 5조 ②항에 해당하는 회원

② 안정된 재정운영과 특별사업의 시행을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① 이 모임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 ② 이 모임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③ 지역화폐 “두루” 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회원 간 거래에 참여할 권리

제 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① 이 모임의 정관,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 ② 회비를 납부할 의무
- ③ 지역화폐 “두루” 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회원 간 거래에 참여할 의무
- ④ 이 모임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 9조 (자격정지) 이 모임의 회원으로서 제8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규에 근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원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10조 (지위 및 구성) 총회는 이 모임의 최고의결기구로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

총회원의 자격은 년 간 8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고 년 간 1회 이상 거래에 참여하면서 한발레츠 행사에 1회 이상 참여한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 중 열린다.
- ② 임시총회는 총회원 1/30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 개최하며, 수시로 공동대표 전원에 의하여 열린다.
- ③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의안과 일시, 장소는 총회개최 7일전에 총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총회원 1/30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역할) ① 정기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한다.

- 가. 정관의 개정
- 나. 대표의 선출
- 다. 운영위원의 선출
- 라. 자문위원의 추대 및 감사의 선임
- 마.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 바. 예·결산 승인
- 사. 기타 중요한 의결사항

- ② 임시총회의 의안은 정기총회가 처리할 사항 중 통지한 사항에 한한다.

제4장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회

제14조 (공동대표)

- ① 공동대표는 이 모임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공동대표는 3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공동대표 중 1인을 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5조 (운영위원회의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시까지 이 모임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의하는 상설 의결기구이다.

제16조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사람으로 구성한다.
 - 가. 총회에서 선출한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
 - 나. 등록소 실장(당연직)
 - 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11인 내외로 한다.
-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1개월에 1회 정기회의로 소집되며 필요시 운영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위임장 포함)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결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처리, 결정한다.

- ①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에 관한 보고 수리
- ② 예산 및 결산
- ③ 재정에 관한 보고 수리
- ④ 사업별 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 ⑤ 직원의 임면
- ⑥ 총회 구성원의 인준 및 회원 자격 심사, 징계, 복권의 결정
- ⑦ 총회의안 및 정관개정안의 제안
- ⑧ 각종 내규의 제정 및 개정
- ⑨ 기타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자문위원회, 감사

제20조 (고문) 각 계의 원로 중에서 약간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 (자문위원) 각계 전문가 중에서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2조 (감사) 이 모임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2인의 감사를 둔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장 등록소

제23조 (지위) 이 모임의 총회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등록소를 둔다.

제24조 (구성) 등록소는 실장과 약간명의 담당자를 둔다.

제25조 (실장) 실장은 총회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업의 집행을 총괄한다.

제7장 재 정

제26조 (회계년도) 이 모임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 (예산 및 결산)

① 운영위원회는 매년 총회에 다음해 예산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계년도 경과 1개월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 결산안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수입) 이 모임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수익으로 하고 회원의 회비는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회원 동의서

1. **한발레츠 지역화폐시스템**은 계정을 갖는 각 개인들의 자유로운 공동체이다. **등록소**는 **회원** 간의 거래를 위해 필요한 정보 교환을 지원하고, **회원이** 원하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계정**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 **회원은** **등록소**에게 **계정** 유지 관리에 필요한 권한을 제공한다.
3. **회원은** **등록소** 및 모든 **회원**들에게 **회원** 동의서에 명시된 책임을 다한다.
4. **회원은** 거래의 일부나 전부를 **공동체 화폐(두루)**로 기꺼이 할 것을 동의한다.
5. **등록소**는 **공동체 화폐(두루)**를 지불할 **회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회원의**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공동체 화폐(두루)**를 이체한다.
6. **한발레츠 지역화폐시스템 관리자**는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정보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7. **공동체 화폐(두루)**의 가치는 국가단위 화폐(원)과 동일하다.
8. **회원은** 필요할 때 모든 **회원의** 계정 잔고와 거래량에 대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9. 국가에 대한 납세의 의무는 그 거래에 관련된 **회원**들의 책임이다. **한발레츠 지역 화폐시스템 등록소** 및 **관리자**는 거래에 참여한 **회원**들을 대신해서 세금을 거둘 권리도, 세무기관에 보고할 의무도 없다.
10. **회원**간에 거래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이나 조건, 가치는 **등록소**가 보증하지 않으며 거래 당사자들이 미리 조사하고 합의해야 한다.
11. **회원은** 자신의 모든 거래 정보를 **등록소**가 기록하는 것을 동의한다. 계정 잔고와 거래량을 제외한 **회원의** 거래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등록소**와 **관리자**는 합법적으로 정보를 보관하는 이상 정보의 유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12. **회원은** **등록소**의 운영을 위해 **월5000원**, 또는 **3000원+2000두루**의 회비를 납부해야한다.
13. **회원은** 6개월에 1회 이상의 (1)' **공지된 회원모임**' , (2)' **거래**' , (3)' **품앗이 장터 거래목록의 재등록**' 을 해야 한다. 6개월 동안 위의 세 가지 항목 중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4. 작은 품앗이로 가입을 할 경우는 10가구 이상, 6개월 동안 작은 품앗이를 운영

하면서 300건 이상의 거래를 한 경우에 한하며, 회비는 월 3만원, 또는 2만원 + 1만 두루를 납부하여야 한다. (6개월 예비 기간 동안의 거래 내역은 거래로 인정하며, 가구가 늘어날 때 회비는 1가구 당 3,000원 또는 2,000원 1,000 두루 이며, 가구가 줄어들어도 최저 회비는 월 3만원 또는 2만원 + 1만 두루 를 유지해야 한다)



한발레츠 회원의 아름다운 의무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 회원 회비를 성실히 납부합니다.**

*** 새회원 교육의 날에 참여합니다.**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새 회원 교육의 날에 오셔야 합니다. 지역화폐는 새로운 형태의 품앗이 방법으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가입 후 시간이 흘러도 참여가 어렵습니다.

*** 거래품목 변경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 제공/요청 품목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이미 거래가 이루어져 “품앗이 장터” 에 내놓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처음 가입할 때 등록한 품목이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 새롭게 제공/요청 할 품목이 생긴 경우
- 적극적으로 “회원정보변경” 을 합니다.

*** 6개월 1회 이상**

- 거래 참여
 - 품앗이 만찬 등의 회원행사 참여
 - 이웃회원 가입시키기
- 에 적극 동참합니다.

*** 우편물 받는곳, 연락처가 변경**

되면, 등록소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바뀐 주소와 연락처를 꼭 알립니다.

*** 이사 등의 이유로 탈퇴를 하게 될 때에는,**

+ **계정인 경우** : 탈퇴전 까지 계정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해 거래에 참여 하거나, 다른 이에게 두루 를 양도하거나, 등록소에 후원하겠습니다.

- **계정인 경우** : 탈퇴전까지 계정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해 거래에 참여하거나, 현금으로 환산해서 등록소에 납부하겠습니다.

CDI세미나 2011-39

제7차 사회적경제연구회 워크숍
사회적경제와 지역기금형성

- 발행자 : 박진도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 주 소 : 314-140 충남 공주시 금흥동 101
 - 전 화 : 041-840-1211
 - 홈페이지 : www.cdi.re.kr
 - 인쇄일 : 2011. 7. 20
 - 인 쇄 : 예로니모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충남발전연구원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